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8호 HYUNBULNEWS.COM 2026년 3월 4일(음력 1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선재 스님과 함께 "우리 모두 장금이"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에게 전통 장 담그기를 배울 수 있는 행사가 2월 26일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장독 분양을 신청한 서울 시민들이 선재 스님(왼쪽)의 지도를 받아 장을 담갔다. 복지관장 정관 스님(가운데)과 정문헌 종로구청장(오른쪽)도 지역 아동과 함께 '장금이'로 변신했다. **임은호 기자**

"옛 도량 홍매 총림을 이루었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3월 3일 동안거 해제 법어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사진)가 3월 3일(음력 1월 15일) 불기 2569년 을사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법어를 내렸다.

성파 스님은 법어에서 "모두가 산문출입을 삼가며 오직 화두타파의 일념으로 정진해서 삼계대도사 사생자부의 안목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도다"라며 "이제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로 역량을 갖추고 산문을 나서게 되었으니 이는 만 중생의 복전이요 경하할 일"이라고 안거 대중의 정진을 치하했다.

이어 "외호대중의 공덕이 지대하다"고 격려하며 "세간의 여러 인연들이 영산(靈山)의 봄소식을 묻는다면 어찌 답하려 하는가? 그대의 걸망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수행을 점검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을사년 동안거 선사방함록(乙巳年冬安居 禪社芳啣錄)〉에 따르면 전국 93개 선원(총림 5곳, 비구 선원 61곳, 비구니 선원 27곳)에서 총 1792명(총림 203명, 비구 선원 1064명, 비구니 선원 525명)의 출가수행자들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 · 총림 방장 해제 법어 5면〉

여수령 기자

불교 유아교육 산실 대자유치원 100년 원력

2월 20일 제99회 졸업식 개최
1927년 개원…最古 불교유치원
9000여 명 졸업한 명문교육기관
문화유산 등재 예고, 새 100년 준비





1927년 개원한 창원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이 2월 20일 제99회 졸업식을 봉행하고 7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왼쪽은 1928년 3월 22일 열린 마산 사립 배달유치원 제1회 졸업기념 사진.

여수령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현존 불교유치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창원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이 제99회 졸업식을 봉행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개원 초기 기록물의 문화유산 등재를 앞둔 시점에 열린 졸업식이어서, 한국불교 유아교육 100년 역사와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상징적인 자리로 평가된다.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 부설 대자유치원은 2월 20일 제99회 졸업식을 열고 7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대자유치원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민족교육 운동과 맞닿아 있다. 양산 통도사가 운영하던 마산포교원의 배달학원과 마산 구락부가 경영하던 마산학원이 뜻을 모아 1927년 4월 5일 '마산 사립 배달유치원'을 개원했다. 당시 123명이 입학해 3개 반으로 운영됐다.

최근 연구에서는 설립 과정에 신간회 활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관여한 것도 확인됐다. 이형재, 최철룡(건국훈장 애족장), 명도석(건국훈장 애국장), 이상만(건국포장) 선생 등이 창립 이사로 참여해 유치원 운영을 이끌었다.

1940년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통도사가 인수하며 대자유치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해방과 전쟁, 산업화라는 격변기를 지나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의 전통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9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경남 지역의 명문 유아교육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월 12일에는 개원 초기의 기록물이 경상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돼 의미를 더했다. '대자유치원 기록물'은 1927년 개원 때부터 1945년까지 원아 모집·학사 운영·활동 모습 등을 담은 졸업생 명부·학사보고철·졸업앨범·개원 기념사진 등 8건, 31점이다.

경상남도는 "일제강점기 지역사회가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라고 평가했다. 불교계 유아교육의 출발과 지역 민족운동의 흐름을 동시에 증언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이날 졸업식에서 정법사 주지이자 대자유치원 이사장인 광우 스님은 "대자유치원은 유아 교육기관을 넘어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성과 지혜를 함께 키워온 수행 도량"이라며 "지혜와 복덕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것이 불교교육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영 대자유치원장은 "우리 유치원은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을 넘어 사랑과 배려, 감사의 마음을 배우는 삶의 첫 학교"라며 "학부모님들의 깊은 신뢰와 교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졸업이 가능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졸업장 수여는 원아 한 명 한 명의 장래 희망을 소개하며 진행됐다. 발레리나, 과학자, 소방관, 경찰, 판사, 수의사, 아이돌 등 아이들의 꿈이 발표될 때마다 학부모와 교직원은 큰 박수로 격려했다. 졸업생 전원에게는 이름이 새겨진 도장과 원석 단주가 전달돼 불연(佛緣)을 기념했다.

한편, 내년 제100회 졸업식과 개원 100주년을 앞둔 대자유치원은 1960년 이전 유치원 활동사진과 졸업증서, 졸업앨범, 상장 등 관련 기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불교문화포털서 본지 기사 만난다

현대불교신문 · 동국대 불교학술원, MOU 체결



한명우 본지 대표이사(왼쪽)와 박인석 KB사업단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한국불교문화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한국불교문화포털'에서 현대불교신문 기사를 만날 수 있게 된다.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은 2월 26일 본지 사장실에서 '한국불교종합포털 뉴스보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포털'은 현재 베타 테스트 단계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3차 고도화 작업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3차 고도화 작업은 불교 현대사 기록 매체로서 가치를 지닌 불교계 주요 언론의 최신 뉴스를 포털에 뉴스 보드 형식으로 탑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협약 역시 고도화 작업 일환으로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현대불교신문의 모바일 홈페이지의 뉴스를 '한국불교문화포털'의 메인 페이지 '뉴스보드'에 주기적으로 수집·제공하게 된다. 포털에 탑재되는 교계 언론은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해 불교신문, 법보신문, BBS불교방송, BTN불교TV, 불교IN, 불광미디어 등 총 7곳이다.

박인석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단장은 "교계 언론의 뉴스콘텐츠들을 함께 제공하면 그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며 "협약 이후 개발 과정을 거쳐 3월 중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는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체결한 이번 협약으로 한국불교문화포털이 전 세계 불교를 대표하는 포털로 성장하길 바란다. 본지 역시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중일 기자

육조정맥선원

생사해탈을 위한 '3년 결사 안거' 대봉행

부처님 열반후, 초유로 생사해탈의 각오로 수행하는 3년 결사가 92세이신 농선 대원 선사님께서 직접 죽비를 잡고 지도하시는 가운데 해남 실증선사에서 봉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제가 아닌, 목숨을 건 결사로 3년 동안 부모가 돌아 가셔도 출입하지 않겠다는 각오하에 이생에 반드시 생사해탈의 문을 넘고자 하는 대정진입니다.
농선 대원 선사님께서는 조계종 지혜제일이신 불조정맥 제77조 전강 영신 전법선사님께 인가를 받아 불조정맥 제78대 전법선사로 법맥을 이으신 분입니다.
선사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종로기원장을 지내신 소진추 거사님과 동아일보 편집국장 정봉진님의 모친이신 전대각월 보살님께서 이미 좌탈 입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수행자를 많이 배출하고자 이번 3년 결사를 봉행합니다.
출가 · 재가를 막론하고 이생에 생사대사의 해결을 발원하는 모든 불자 여러분들의 동참과 성원을 바랍니다.



실증선사 전경

입방요건 I 나이(30-60대 남·녀) /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분 제출서류 I 입방각서, 건강진단서 접수기간 I 2025.12.07-2028.12.07 문의 I 010-8670-1445

“정초기도 공덕, 사회로 회향해야”

2월 25일, 조계사 7일 기도 회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법문
“선명상은 마음 가라앉히는 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2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정초 7일기도 회향법회’에서 사부대중에게 회향의 진정한 가치를 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초기도 회향 의미를 되새기며 탐욕을 내려놓는 ‘방하착(放下着)’과 마음 평화를 위한 ‘선명상’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2월 2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정초 7일기도 회향법회’에서 지도법사로 나서 사부대중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닦은 공덕을 사회와 조상에게 돌리는 회향의 진정한 가치를 설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기도 과정에서 겪는 번뇌를 언급했다. 스님은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괴로워지기 마련”이라며 “욕심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해 마침표를 찍는 회향은 결국 중생에게 복으로 돌아가며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져 있는 ‘원만성취’의 경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을 예로 들며 불교의 인연법과 천도의 원리를 풀이하기도 했다. 스님은 “보이지 않는 원자가 모여 물질을 이루듯 조상과 나는 보이지 않는 ‘식(識)’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자역학의 ‘얽힘 현상’처럼 시공간을 초월해 조상의 업과 나의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또 조상 천도에 대해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면 조상의 단단한 업이 녹아내리고 편안해진 마음이 곧 나에게 전달돼 나의 업장 또한 소멸되는 것”이라며 “결국 천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장애를 없애고 평화를 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불편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육바라밀’ 실천을 주문했다. 스님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를 내면 또 다른 과보를 부를 뿐”이라며 “인욕하고 참는 연습을 통해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 것이라는 집착을 버리고 나누는 것이 곧 마음을 비우는 방하착”이라며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없듯 잠시 인연 닿아 머무는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말고 베풀어야 마음의 걸림이 사라지고 육도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종단 핵심 사업인 ‘선명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현대인들은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번뇌 속에 살고 있다. 선명상은 요동치는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지름길”이라며 “현대인들이 선명상을 통해 불교에 친숙해지고, 나아가 간화선이라는 정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포교 전법”이라고 강조했다.

MZ세대, 조계사서 삶을 묻다

2월 22~27일, 1차 대학생 단기출가
진우 스님 “번뇌 벗어나는 게 출가”


2월 22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린 ‘불기 2570(2026)년 제1차 대학생 단기출가 입재식’에서 참가자들이 머리카락의 일부를 잘라내며 수행 의지를 다졌다.

MZ세대 청년들이 조계사에서 단기출가를 체험하며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가 진행한 ‘불기 2570(2026)년 제1차 대학생 단기출가’가 2월 22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을 원만 회향했다.

이번 단기출가에는 남자 7명, 여자 8명 등 15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예불과 교육, 참선 정진, 운력 등 수행자의 일과를 함께하며 출가 행자의 삶을 몸소 익혔다. 휴대전화와 일상적 관계망에서 잠시 벗어나 청규를 따르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입재식에서 주지 담화 스님은 “하루라도 출가의 삶을 살아 보는 것은 큰 복”이라며 “말과 행동을 삼가고 진짜 출가자의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삶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행자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삼배로 서원을 올린 뒤 머리카락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과 행자복 착복, 대승원력 10계에 맞춰 절을 올리기 등으로 출가자로서의 수행 의지를 다졌다.

단기출가 도감은 부주지 탄보 스님, 은사는 덕산·원지·성해 스님, 지도법사와 습의사는 각각 보각·정오 스님이 담당해 수행 전반을 지도했다.

2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출가의 참뜻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진우 스님은 “출가는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 등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존재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라”고 조언했다.

또 “세상은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결돼 있어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연기법의 이치를 믿고 욕심을 덜어 내면 인연이 자연스레 돕는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모든 것이 덕분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출가자의 자세”라며 남은 일정을 잘 회향하길 당부했다.

이번 단기출가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을 지낸 유주연 행자가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유 행자는 “그동안 배운 가르침을 다시 정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다”며 참가 계기를 밝혔다.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친 대학생 행자들은 27일 회향식을 끝으로 일상으로 돌아갔다. 조계사는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선거소청’ 은해사, 직무대행 체제로

2월 24일 성천 스님에 임명장 전달
“교구 안정…호계원 판단 존중”
재심호계원, 3월 5일 상소 첫 심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24일 성천 스님에게 은해사 주지 직무대행 임명장을 수여했다.

주지후보 선거소청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은해사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주지 임기 만료 후 은해사의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성천 스님에게 주지 직무대행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성천 스님의 수행과 이력을 두루 검증해 고심 끝에 직무대행을 맡기게 됐다”며 “은해사 대중으로서 사정에 밝은 만큼 교구 스님들과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의 마음을 추슬러 교구 안정과 화합을 이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 직무대행 임명을 계기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천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사부대중이 화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맡겠다”고 답했다.

성천 스님은 혜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5년 수계(사미계)했다. 조계총림, 덕숭총림 등 제방선원에서 10안거 이상을 성만했으며 영지사 주지, 은해사 사회국장 등을 역임했다.

임명식 직후 조계종 총무원은 대변인 묘장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직무대행 임명이 “교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종단의 종법 질서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 집행부는 사법 기구인 호계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재심호계원은 지혜롭고 조속한 판단을 통해 종단의 안정과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2월 20일 열린 제430차 회의에서 덕관 스님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덕관 스님은 소청 결과에 불복해 재심호계원에 상소를 접수했다.

2월 23일 상소 서류를 접수한 재심호계원(원장 정묵 스님)은 3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68차 심판부를 열고 상소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개시한다. 조계종 ‘선거법’에 따르면 재심호계원은 상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수령 · 김내영 기자

법주사 종회의원 보궐선거에 현우 스님

2월 26일, 187표 중 100표 획득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중앙종회의원에 보궐선거에서 현우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현우 스님은 2월 26일 열린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인단 225명 중 18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00표를 얻어 당선됐다. 석두 스님은 82표를 획득했으며, 무효표는 5표다.

이번 보궐선거는 중앙종회의원 원경 스님의 총무원 직할사찰 강화 보문사 주지(관리인) 임명에 따라 치러졌다.

현우 스님은 “앞으로 교구 발전과 대중 화합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현우 스님은 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5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공림사 주지를 거쳐 현재 영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보은 법주사=유재상 충청지사장

2026년 1학기
광주불교교육원 수강생 모집

광주불교교육원은 26년 이상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불교의 깊은 지혜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6년도 1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여정을 꿈꾸는 많은 분들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대학생 00명, 대학원생 00명
■ 지원자격 : 불교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불교대학 : 2026년 3월 10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개강 (14주 강의)
– 부처님의 생애, 십업설, 오계, 십계, 불교예절, 불교신행실습, 명찰순례
– 강의교재경전 무료제공
■ 불교대학원 : 2026년 3월 11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개강 (14주강의)
– 불교 명상심리 특강 (김형준 교수)
– 앙구타라니카야 강독 (인행 스님)
– 강사진 : 김형준 교수, 혜민법사, 인행스님, 법연스님, 이순규 교수
– 강의 교재 경전 무료제공
■ 수 강 료 : 학기당 150,000원(대학, 대학원 공통)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소정 양식)
■ 입학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1(3층)
전화 : 062)228-9098, 010-3240-9098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및
해동율맥 아일다율원 학인모집 공고

담양 용화사에서 한국 불교의 핵심 의례인 ‘전통불복장’과 ‘계율’의 전통을 계승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 과정 안내

구 분	교육내용	기 간	교육시간
전통불복장	불복장 이론 및 실기	2년과정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율원 전문반	율장의 기초 및 전문 이론	2년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율원 연구반	전통율맥의 심화 연구	2년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모든 수업은 온/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 함.

2. 개강일시 : 2026년 4월 8일 매주 수요일
3. 수 강 료 : 매월 20만원(교과서 별도)
4. 지원자격 : 가)율 원 1. 기본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구족계(타종단가능)를 수지한 자
2. 불기 2570(2026)년 구족계 수계 예정자
나)불복장 1. 불교계 비구, 비구니, 교법사, 교임
2. 의식에 관심있는 출·재가불자
5. 제출서류 : 1)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공통 4)기본교육기관 졸업 증명서(율원과정)
2)승적증명서 및 수행이력서 – 공통 5)반명함 사진 2매 – 공통
3)수계증사본(율원과정)
6. 접수 및 문의 : 담양 용화사 종무소 061)381-2683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교육원·아일다 율원장 도월 수진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용화사

“호산 스님께 올림픽 메달 걸어 드리고파”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 환영법회

2월 22일 봉선사, “마음 모인 결과”
호산 스님, 축원으로 “앞날 응원”

남양주 봉선사=여수령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값진 메달을 안고 돌아온 스노보드 국가대표 김상겸, 유승은 선수가 호산 스님의 목에 메달을 걸어 드리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2월 22일 설법전에서 봉행한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 환영법회’에서다.

호산 스님은 2003년부터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며 설상 종목 꿈나무를 육성해 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상호 선수를 비롯해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김상겸·정해림·최가온·유승은·이채운·이지오 선수 등이 달마배 출신 ‘달마 키즈’다.

이번 대회에서 김상겸 선수는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유승은 선수는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법회에서 호산 스님은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스님은 2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 온 김상겸 선수에 대해 “오랜 시간 국가대표를 유지하며 네 번째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다”며 “메달의 색깔과 관계없이, 후배들에게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 준 훌륭한 귀감”이라고 치하했다. 또 김 선수의 아내 박한솔 씨에 대해선 “봉선사를 찾아 법당과 전각을 돌며 108배를 올렸다”며 “가족과 불자들의 마음이 모여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은 선수의 메달 소식에 대해서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표현했다. 호산 스님은 “불과 서너 달 전만 해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선수가 기적처럼 메달을 땄다”며 “출전 전 ‘잘 즐기고 오라’고 격려했는데 메달 소식에 정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김상겸 선수와 유승은 선수가 2월 22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주지 호산 스님에게 메달을 걸어 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왼쪽부터 유승은 선수의 어머니 이희정 씨, 유승은 선수, 호산 스님, 김상겸 선수, 김상겸 선수의 부인 박한솔 씨.

동안거 입재 기간 동안 ‘달마 키즈’들의 선전을 축원해 온 호산 스님은 “기도는 나만이 아닌 가족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며 “메달은 선수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가족의 정성, 불자들의 축원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108배와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린 김상겸 선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할 때 호산 스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올림픽 전에 봉선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는데, 덕분에 마음을 비우고 갈 수 있어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달은 제가 땄지만 호산 스님께 꼭 걸어 드리고 싶었다”며 스님의 목에 은메달을 직접 걸었다.

유승은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달마배에 꾸준히 출전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 때 스님께서 축원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기운을 많이 얻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유 선수도 호산 스님의 목에 메달을 직접 걸어 드린 뒤 합장으로 인사했다.

최현국·부석종 대사에 국익행보 당부

진우 스님 “참전국 보은 · 지진 구호 등 불교계 가교 역할 하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최현국 주콜롬비아 대사와 부석종 주튀르키예 대사 내정자의 예방을 받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예방은 불자 장성 출신인 이들이 3월 중순 출국을 앞두고 진우 스님께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외교부로부터 2월 11일 임명된 최현국 주콜롬비아 대사는 공군사관학교 33기 출신으로 제41대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냈다. 영외 법당 및 장병 포교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2019~2020년 국군불교총신도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리더스포럼 지도위원을 맡고 있다.

부석종 주튀르키예 대사 내정자(전 해군참모총장)는 해군사관학교 40기로 입교, 2021년 해군 대장으로 전역했다. 2010~11년 청해부대 5진 부대장 당시 소말리아 해적퇴치 대장정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제12대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을 역임하며 부대 법당 신축 및 시설 확충 개선으로 군 장병의 신행 생활을 지원하고 불교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군불교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가 안보 확립에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불자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불교리더스포럼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군에서 쌓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외교 일선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펼쳐 달라”고 격려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25일 최현국 주콜롬비아 대사와 부석종 주튀르키예 대사 내정자의 예방을 받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왼쪽부터) 최현국 주콜롬비아 대사, 진우 스님, 부석종 주튀르키예 대사 내정자.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 다례…“큰스님 사랑합니다”

한마음선원, 2월 18일 봉행
1천여 명 참석해 유훈 기려
혜수 스님 “정진만이 報恩”

한마음선원을 창건해 마음공부의 도량을 열고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나선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탄신 99주년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2월 18일(음력 1월 2일) 안양본원에서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이사장 혜수 스님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을 비롯해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 등 전국 지원장 스님,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박종수 명예신도회장과 본원·지원 신도회 임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은 2월 18일(음력 1월 2일) 안양본원에서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혜수 스님이 헌향과 헌다를 하는 모습.

대행 선사는 영상법문을 통해 “만법이 한마음에서 들고 난다”고 강조하며, 주인공(主人空)을 관하는 ‘생활참선’을 강조했다. 대행 선사는 “주인(主人)은 여러분들의 중심이며, 공(空)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돌아가는 그 자체이다. 찰나 찰나 변해 돌아가기에 주인공”이라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관찰하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대행 선사는 “일하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서 있으면서도 누워서 있으면서도 항상 정진하는 게 참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생활이 참선이 되면 일체 만물이 다 공안이 될 수 있고, 내가 앉은 자리가 도량이 될 수 있다”고 설했다.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단한 정진만이 대행 선사의 큰 은혜를 갚는 길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 저희를 떠나신 지는 14년이 흘렀지만 99세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늘 함께하고 계신다”며 “우리들의 스승이신 큰스님 탄신 99주년 다례에 함께해 주신 대중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무한한 대자비의 법문을 설해 주셨던 대행 선사의 은덕에 우리는 얼마만큼 더 감사해야 하고 얼마만큼 감개무량하면서 은혜를 갚아야 하겠는가”라며 “우리가 은혜를 갚는 길은 주인공 자리에 놓고 관찰하고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현준 신도회장은 마음의 편지를 통해 흔들림 없는 정진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본원 선법합창단은 대행 선사의 게송과 법문을 노랫말로 만든 선법가 ‘대장부 살림살이’를 음성공양했다. 안양 한마음선원=신중일 기자

조계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환영”

2월 19일, 환영 논평 발표
“공공기관 종교 중립성 회복”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내에서 예배 등 종교행위를 해 논란을 빚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월 19일 최종 해임됐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는 2월 23일 논평을 내고 “해임은 단순 인사 조치가 아닌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과 공공기관의 종교적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김형석 관장은 지난해 4월부터 독립기념관 내 시설을 특정 종교 활동에 무상 제공하고, 예산을 특정 종교 행사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교 관련 자문위원회를 특정 종교만으로 구성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종교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계종과 태고종 등 불교계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김 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종평위는 논평문에서 “해임 결정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종교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앞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종교 편향적 인사가 국가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독립기념관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종교적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며 국민 모두의 역사적 자산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3대 전국비구니회

제20차 정기총회 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병오년 새해에도 수행정진과 불사포교가 무장무애하시길 기원드리며, 전국비구니회는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하여 제20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이어 그동안 준비해 온 전국비구니회원장을 시행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불기2570(2026)년 3월 26일(목) 오후1시

장소 | 전국비구니회관 만불전

안건 | ① 회칙 개정 인준의 건
② 감사 인준의 건
③ 2025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의 건
④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⑤ 전국비구니회원장 보고의 건
⑥ 기타

불기2570(2026)년 3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봉행

진각국사 혜심 탄신
제848주년 기념
제21회 추모 다례재

귀의 삼보하옵고

사단법인 진각국사선양회에서는 고려 중기 화순에서 태어난 세계적 선사 진각국사 혜심 스님의 뜻을 기리며 제21회 추모 다례재를 봉행합니다.
이번 다례재는 화순군민 모두가 진각국사의 삶과 정신을 다시 새기고, 고향의 자긍심을 되찾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진각국사 체험관 건립의 원력을 함께 나누고, 수행과 힐링, 마음챙김의 공간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화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밝히는 이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2026년 3월 11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화순문화원
■ 주최 : (사)진각국사 선양회, 진각국사 체험관 건립 추진위원회
■ 후원 : 화순군 Hwasun-gun 화순군의회 Hwasun-gun Council
■ 협찬 : 화순 문화원, 화순 초등학교 제37회 동문회, 화순읍 유천리 벽오동 보리밥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1길 16 혜심사 H·P 010-2971-4646

조계종, 올해부터 '재가자 포살' 시행한다

조계종 포교부, 포교단체장 회의서 계획 공유

종책 공모 수상작에 기반해
하안거·동안거 年2회 시행
교구본사 등서 시범 운영

출가학교 확대로 출가 진흥
30돌 파라미타 기념사업 등
전국 포교단체 사업 발표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포교부는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조계종 포교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직후 기념촬영.

조계종이 올해부터 재가신도를 대상으로 포살법회를 운영한다. 재가자들에게 계율을 점검하고 참회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행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는 2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조계종 포교단체장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과 일정을 소개·공유했다.

올해 포교부는 주요 종책 전략을 △출가장려 △수행 대중화 △신도 조직 재구조화 △신도 등록 사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포교부는 재가신도들의 수행 문화 진작을 위해 처음으로 '재가자 포살법회'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재가자 포살법회'는 조계종연구소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종책제안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향림 스님(봉녕사)의 '재가자 포살 실행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계율과 참회를 실천하는 수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기획 목표다.

재가자 포살법회는 교구본사 등에서 우선 시범 운영되며,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 보름이나 지정일에 걸쳐 연2회 시행된다. 포교부는 3월 중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재가자 포살본 및 108 참회문 등 프로그램을 개발을 진행해 올해 동안거부터 포살법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결계 포살 제도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 왔는데 수행 공동체 문화를 정착·진흥하기 위해 재가불자들도 결계 포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면서 "재가자 포살본, 108참회, 계율 수행 점검 등을 통해 수행의 지속성을 높이고 향후에는 권역별 사찰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가 장려를 위한 출가학교는 올해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호평 속에 진행된 수덕사, 선운사에 이어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확대돼 신흥사(강원), 범어사(부산), 통도사(경남), 동화사(대구)에서도 출가학교를 만날 수 있다. 월정사, 봉녕사, 붓다선원 등 기존 출가학교 운영사찰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가 장려를 추진한다.

정무 스님은 "종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소년, 청년 출가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포교부에서 종립학교, 군법당 등 일선 현장에서 상담과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출가 장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신도증에도 변화가 생긴다. 3월 중 신한은행과 신도 등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예정돼 있으며 다양한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멤버십 혜택 증대도 계획 중이다. 교무금 전자납부 시스템 도입과 어린이·청소년 전용 종단 신도증 발도 추진된다.

정무 스님은 "종단 애종심과 제적 사찰 소속감을 증진하기 위한 신도증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신도증 결제 시스템 등 편의성 부문을 증진시키고 교무금도 현실화해 신도 목적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교신도단체 주요 사업 계획들이 공유됐다. 조계종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는 올해부터 '국제포교불교대학'을 본격 운영한다. 국제 포교를 위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포교사회의 각종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국제포교불교대학' 예비 국제포교사를 대상으로 한 품수 과정과 불교 초심자를 위한 기본과정, 국제포교사 및 일반 불자를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파라미타는 3월 중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업의 시작을 알리며 4월에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30주년 사업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7월 28~30일 청소년 연합캠프와 30주년 기념법회를 함께 개최하며 10월에는 창립 30주년 메타버스 전시관을 오픈한다.

중앙신도회 "내실 다지는 조직 강화의 해"

2월 24일, 제28-2차 대의원 총회
2026년 신년사업 계획안 등 공유


중신회는 2월 24일 서울 을지트윈타워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제28-2차 대의원 총회'를 열고 2026년 신년사업 계획안을 공유했다. 사진은 총회 후 기념촬영.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 이하 중신회)가 2월 24일 서울 을지트윈타워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제28-2차 대의원 총회'를 열고 2026년 신년사업 계획안을 공유했다. 중신회는 올한 해의 기치를 '조직 강화의 해'로 정하고 '신도조직 역량 강화' '포교결집' '사회공동선구현' '교육 수행' 등에 맞춰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원주 중신회장은 "지난해 12월 신설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재 중앙신도회의 조직 현안을 파악하고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며 조직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기존 사업을 굳건히 하면서 신도조직 활성화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신회는 먼저 소통과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신도조직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지난 1월부터 전국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교구장 스님 및 교구신도회장 등을 예방해 각 교구의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5월 중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를 개최해 교구신도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3월 12일에는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초청, 오찬과 함께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고언을 청해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중 스포츠와 결집대회를 통해 지역 포교결집에도 앞장선다. 4월 12일 밀양 용궁사 일대에서 조계종 산악회와 함께 트래킹하는 포교결집대회를 시작으로 6월 23일 중앙신도회장배 친선 골프대회와 10월 말 예정된 총무원장배 전국불자 자선 파크골프대회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대중 스포츠를 연계한 조직강화 및 포교 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불교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불자로서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다.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를 비롯해 '불교굿즈 공모전'을 기획하는 등 K-불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중적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사회적 역할을 한층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과 수행을 기반으로 중앙신도조직 강화에도 앞장선다.

3월 21~27일 '중국 선종사찰 순례'를 시작으로 국내외 사찰 순례 및 템플스테이를 추진해 임원 간의 신심과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올바른 수행문화 정립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나는 절로 선운사' 호남거주 미혼남녀 모집

전국민적인 관심과 뜨거운 호응 속에서 개최되고 있는 '나는 절로'가 올봄, 천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고창 선운사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찰 지역 기반으로 진행, 호남권 거주자 및 연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은 3월 28~29일 1박 2일간 '나는 절로, 선운사'를 개최한다.

종교에 상관없이 △호남 거주자 △호남과 깊은 인연이 있는 2030 미혼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3월 5일 오후 5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의 공지사항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2-723-2217 임은호 기자

대불련·홍대선원 청년 전법 활성화 손 맞잡았다

저스트비 히말라야서 MOU
"청년불자 든든한 안식처" 약속



글로벌 수행놀이터로 불리는 JustBe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 이하 홍대선원)과 KBUF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선민지, 이하 대불련)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생 청년 전법 포교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홍대선원과 대불련은 2월 7일 네팔 포카라에 위치한 저스트비 히밀라야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

이날 양 기관은 국경과 경계를 허물고 대학생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안식처로서의 책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홍대선원은 대불련 회원의 템플스테이 다인실 금액을 3만원(1인/1박)으로 할인해 진행하고 대불련 소속 동아리 간 연합법회와 같은 특별행사를 지원하는 등 청년 대학생 전법활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준한 스님은 네팔 포카라에 저스트비 히말라야를 건립하고 순례길 만들기를 시작하게 된 연유를 설명하며 "이곳은 부처님이 태어난 고향이자, 출가 전 태자 시절 때 설산을 오르락내리락하던 히말라야에 한국 사찰이 없는 점이 안타까워 사찰을 짓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룸비니까지 걸어가는 순례길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 내면의 힘을 키우고 지혜로워져서 인연되는 모든 법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민지 중앙회장은 "홍대선원과 대불련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 주는 울창한 숲으로 자라나길 서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순례길 복원이 여법하게 진행돼 앞으로 대학생 청년 불자들이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서원하는 '1평 복전(福田) 불사'에 동참, 모연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2026 NGO 공모…1억원 지원

교육 · 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이메일로 3월 18일까지 접수

조계종 사회부와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NGO 등을 대상으로 'NGO 공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속가능! 공공가치!'를 기치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불교적 자비정신을 현대적 공공가치로 승화하고 종교적 경계를 초월해 일반 NGO들과 연대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저소득층·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는 교육 및 심리치료,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동선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약자 역량강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지역사회 에너지 전환 교육·생태계 복원 활동 등 시민들의 실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해외 빈곤 지역의 식수·보건 환경 개선 및 국내 탈북민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직업 훈련과 정서적 지원 등 범인도적 차원의 실무 사업을 포괄하는 국제개발·탈북민 인도적지원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꿈 찾기 멘토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다음 세대가 전인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미래세대 역량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실시된다. 지원 규모는 총 1억원이며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접수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며 최종 선정 시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26일 종단홈페이지 및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http://dreaminus.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02-737-9553

임은호 기자

수덕사·선운사 단기출가 참가자 모집

수덕사, 4월 1~10일 열흘 동안
선운사, 4월 3~12일 '쉼' 주제

'출가절벽' 대응책으로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단기출가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와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단기출가학교를 연다.

수덕사는 4월 1~19일 9박 10일간 경내에서 '수덕사 제2기 단기 선출가학교-나를 찾는 열흘 간의 출가'를 실시하고 대중생활이 가능한 17~65세 남녀 각 10명, 총 20명을 선발한다. 3월 20일까지 수덕사 홈페이지(www.sudeoksa.com)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과 이메일(sudeaksa @hanmail.net)로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과 건강검진서도 동봉해야 한다.

1차 서류 합격자는 3월 23일 발표하며 전화 및 화상으로 2차 면접 후 최종합격자는 3월 26일 발표한다.

수덕사 측은 "사람이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다는 뜻은 나를 알아 얻는 데 있다는 만공 선사의 말씀을 바탕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041-330-7788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4월 3일 고불식을 시작으로 4월 12일까지 9박 10일 동안 선운사 제2기 단기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을 개최한다.

선운사 제2기 단기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을 비롯해 지도법사 스님들이 법문과 지도를 맡아 참가자들이 올바른 불교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선운사 홈페이지(http://www.seonunsa.org)에서 가능하다. 15명 선발 예정이다.

경우 스님은 "선운사는 교육수행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향후에도 봄, 가을로 연 2회 단기출가학교를 운영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출가 저변 확대 및 승가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세대 및 일반대중에게 불교 가르침을 전해 자아 성찰 및 내적 성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63-561-1422

조계종의 핵심 주요 과제인 출가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단기출가학교는 정식 출가에 앞서 출가 수행자의 생활과 수행을 직접 체험해 보고자 하는 이들이 템플스테이나 수련회가 아닌 실제 출가 수행자에 준하는 일상과 청규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임은호 기자

송파세모녀 12주기 "가난, 죄송한 일 아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2월 26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송파세모녀 12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사노위, 2월 26일 추모제 봉행
"소외 이웃 위한 정책 최우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2월 26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송파세모녀 12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서울 송파 석촌동에 거주하던 송파세모녀는 2014년 2월, 질환과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겨 두고 생을 마감했다.

사노위원 한수 스님은 "가난은 죄송한 일이 아니"라며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은호 기자

고원홍매 총림을 이루었네

〈古院紅梅〉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三冬安居幾用工(삼동안거기용공)
惺惺著意大疑中(성성착의대의중)
西風忽起庭前樹(서풍홀기정전수)
隻鶴高飛萬里空(척학고비만리공)

삼동 결제하고 공부에 얼마나 힘썼는가?
화두가 성성하여 크게 의심하는 가운데
뜰 앞 전나무에 홀연히 서풍이 불고
한 마리 학은 만리장천을 오른다.

전국(全國) 선원대중(禪院大衆)이 삼동결제(三冬結制)를 성만(成滿)하고 이제 해제를 하게 되었도다. 모두가 산문출입을 삼가며 오직 화두타파의 일념으로 정진해서 삼계대도사 사생자부의 안목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도다.

이제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로 역량을 갖추고 산문을 나서게 되었으니 이는 만 중생의 복전이요 경하할 일인지라. 소나무 춤추고 개울물은 찬탄의 노래를 부르도다.

이러한 일이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기에는 외호대중의 공덕이 지대하고, 최상승 수행법을 만난 선근인연이 함께해서 가능해짐이로다.

포단에 오뚝이 앉아 정진함은 무명을 타파해서 청정본연의 지혜덕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요, 구름 흩어진 하늘의 달을 빛나게 함이로다.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들이여!

세간의 여러 인연들이 영산(靈山)의 봄소식을 묻는다면 어찌 답하려 하는가? 그대의 걸망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삼동을 견딘 보리 싹은 힘차게 솟고 보경호 고요한 물엔 영축산이 장엄하게 담겨있다 하리라.

平生志願未成功(평생지원미성공)
歷盡艱難始遇通(역진간난시우통)
金剛寶壇重上見(금강보단중상견)
古院紅梅已成叢(고원홍매이성총)

평생 세운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힘을 다해도 어렵더니 비로소 통하네
금강보단에서 거듭 우러러보니
옛 도량 홍매는 이미 총림을 이루었네.

마음의 달이 홀로 원만히 밝도다

태고종 종정 운경 상보 대종사



始覺本明(시각본명)
雪消春至(설소춘지)
萬法歸一(만법귀일)
心月孤圓(심월고원)

비로소 깨달음은 본래 밝은 것이니,
눈이 녹듯 봄이 이르도다.
일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마음의 달이 홀로 원만히 밝도다.

삼동(三冬) 긴 결제가 원만히 회향되고 동안거 해제의 날을 맞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선방과 각 도량에서 흘린 정진의 땀과 공덕이 법계에 두루 회향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위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속하며 한 생각을 관조한 그 시간은 곧 스스로의 불성을 밝히는 귀한 수행이었습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형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 있을 때만 선(禪)이 아니라, 서고 걷고 말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연속입니다. 한 생각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한 생각 사라짐을 비추는 것이 곧 참선이며,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념(正念)의 삶입니다.

결제 기간 동안 우리는 탐진치의 번뇌를 살피고, 습기를 다스리며, 화두와 염불, 간경과 수행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제를 맞이한 지금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방일(放逸)입니다. 결제가 풀렸다고 하여 마음까지 풀어버린다면, 그동안 쌓은 공덕은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제는 곧 새로운 정진의 시작임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중략〉

春到禪林雪自消(춘도선림설자소)
一輪心月照寥寥(일륜심월조요요)
解制還須勤正念(해제환수근정념)
行深處處是菩提(행심처처시보리)

봄이 선림에 이르니 눈이 저절로 녹아 사라지고
한 둥근 마음의 달이 고요히 법계를 비추도다.
해제하였으나 다시 모름지기 바른 마음챙김에 힘써야 하며
깊이 행하는 곳마다 그 자리가 곧 보리이로다.

법어 전문 바로가기

돌사람이 불조관을 타파하다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佛紀二五七十 乙巳年 正月 十五日
海印寺 冬安居 解制法語

陞座拄杖三下云 會麼?

[법상에 올라 묵연히 앉았다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들어 보이고 이르되] 아시겠습니까?

九旬結解爲何事 石人打破祖師關
明月淸風是吾家 往來衣食溢鉢盂

백일 결제 해제는 무슨 일을 함인가?
돌사람이 불조관을 타파하니
청풍명월이 다 나의 집이요
가고 옴에 옷과 밥이 발우에 흘러넘침이로다.

금일 解制 大衆께서는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밝은 것과 밝음이 없는 것은 범부 중생의 견해요, 지혜 있는 자가 了達하면 그 성품이 둘이 없음이라. 둘이 없는 성품이 곧 실상이라.

실상자는 범부에 처해 있어도 멸하지 않고, 현성에 처해 있어도 더하지 않네.

번뇌에 머물러도 어지럽지 않으며, 禪定에 居해도 고요하지 않으며, 단견도 아니요, 상견도 아니라.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요, 중간과 그 안과 밖에도 있지 않음이라.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항상 금일과 같다.

항상 상주해서 변천이 아니다.

오직 목전사일 뿐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道라 하네.

금일 해제 대중이여 어제는 어린 아이를 짓고, 오늘 아침은 나이가 이미 늙었음이로다.

(3 8 9)를 밝히지 못하면 옛 황제의 길을 밟기 어렵다.

손으로는 황하강과 하늘을 녹이고, 다리로는 수미산을 걷어차서 꺼꾸러지게 함이라.

떠 있는 인생이 꿈과 같은 몸이고, 사람의 목숨이 벌써 저녁이라, 보존하기 어렵도다.

천당과 지옥이 다 마음으로 짓는 바이니, 가고 옴에 부딪히는 곳마다 그를 만나서 전체의 기틀에서 홀로 벗어났나니, 정히 이런 때를 당하여 어떠한가?

백운은 본시 무심해서 물건과 온갖 것이 한가로이 허공에서 출몰함이라.

다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雖然萬里無寸草
往來喫食無沾唌
上行買賣不饒讓
好物從來價自殊

비록 그러하나, 만리에 마디 짧은 풀 한 포기조차 없고, 가고 옴에 밥을 먹을 때 입술을 적시지 않는다.
위로 행해 사고 팔 때 넉넉히 양보하지는 않으나, 좋은 물건은 종래로 값이 스스로 다르니라.

喝하시고

拄杖三下 下座하시다.

만 가지 경계가 한마음에 들어있다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오늘은 을사(乙巳)년 동안거 해제 날입니다.

석 달 동안 용맹정진해서 선방에서는 확철대오 한 납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율원에서는 율장 정신으로 청정하게 수행하시고,

강당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새겨서 성불의 발판을 삼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행하고 정진하는 데는 결제 해제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해제 동안에도 자신의 본분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竹影掃堦塵不動(죽영소개진부동)
月穿潭底水無痕(월천담저수무흔)

대나무 그림자가 돌계단을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달빛이 연못 바닥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

달빛에 비친 대나무가 바람에 일렁이면서 계단을 쓸어도 계단에는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도를 닦는 수행자의 마음자리는 온갖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마음에는 전혀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야 본성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계가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근본 자성 자리는 미동도 하지 않아야 도를 닦은 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인의 마음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영원한 실체로 보지 않고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이 보기 때문에 세간 경계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중략〉

근본 마음 자체는 탁 트여서 파란 하늘과 같은 것이다.

맑은 마음 그 자체에 미움도 없고 성냄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편견 된 마음으로 밉고 곱고 깨끗하고 더럽고 온갖 마음에서 차별 경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늘 바탕은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 늘 맑고 如如(여여)한 것이다.

生死(생사)와 涅槃(열반)이 끝내는 두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생사가 있지만 마음을 깨달은 성인의 경계에서 바라보면 생사와 열반이 本空(본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생사가 열반이요 열반이 곧 생사입니다.

萬境無限하여 咸入一心之內니라.
만 가지 무한한 경계가 모두가 한마음에 들어있다.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경계가 모두가 자신의 한마음에서 분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신이 만든 경계에 속아서 울고불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고,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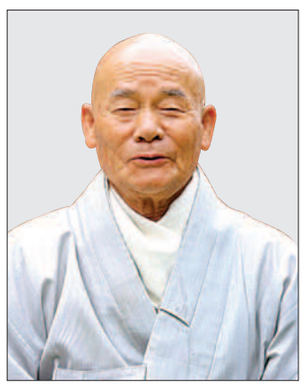
진정한 해탈은 그 무엇을 갈구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이끌리지 않으며 어디로 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으며 일상생활 그대로 如如(여여)해서 감에 감이 없고, 옴에 옴이 없습니다.

머물고 행하는 그대로 一如(일여) 해서 걸림이 없습니다. 마치 구름 벗어진 파란 하늘과 같은 것입니다.

법어 전문 바로가기

소가 돼도 코 꿸 구멍이 없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삼천대천세계가 시아(是我), 이놈, 이 자체

마하 반야 이~~ . 바라밀 야! 이~~~야!

천상천하 산하대지 한 덩어리 이뭘까?

수미산 마나슬로바, 백두산 천지, 덕숭산 鶴池, 모두가 보살의 심장입니다.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내 너를 위해! 시원시원 터진 보살행, 병오년 적토마 주인 보살행

홀문인어무비공(忽聞人語無鼻孔)
돈각삼천시아가(頓覺三千是我家)
유월연암산하로(六月鷰巖山下路)
야인무사태평가(野人無事太平歌)

'소가 돼도 코 꿸 구멍이 없다.' 이 말에 경허 스님은

삼천대천세계가 시아, 이놈이라는 것을 돈각했습니다. 몰록 깨달았습니다.

연암산 아랫길이 훤해졌습니다. 들사람 한가하다, 태평가로다.

모든 생명의 소원, 쉬고 싶다.

至心바다에 푹~신 쉬고 싶습니다. 아, 세상살이 코가 꿰었었구나!

다 버리고 성 넘어 새벽별에 부처님은 확철대오 하셨습니다.

부처님 성도(成道) 납월 팔일

납월 팔일은 무르익어 무르익어 겨울 안거 절정입니다.

마하 반야 이~~ . 바라밀 야! 이~~~야!

〈중략〉

관세음보살~ 하면 다 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가슴이 흡족해집니다.

해제하면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해보시길 권합니다.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그 자리를 볼 때까지 기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자대비 사랑 관세음보살~ 한 세상 놓고 관세음보살~

점점 한가해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대자대비 화두에 푹신 젖어 세상이 손안에 구슬인가? 자유자재 가벼워집니다.

내 얼굴 재밌어 보이는 얼굴로 자꾸 바꾸어져 갑니다.

눈앞에 두두 일체가 조도(助道)의 벗이요, 상주일체가 부처님

작은 일상이 생명의 신바람

확실하게, 정확하게, 옳게, 맞게! 살판나는 신바람

밀밀회광이자간(密密廻光而自看)하라.

돌이켜 돌이켜 체껴라. 결코 딴데 있지 않네.

이뭘까에 와 있으니 구경(究竟)을 다시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적적이빈주(寂寂離賓主)
요요절색공(寥寥絶色空)
공산풍우다(空山風雨多)
화락무인소(花落無人掃)

역력해서 빈주가 없네. 손과 주인이 따로 없네.
고요해서 색공이 끊어져 한 덩어리 일색이네.
산천에 비바람 잦아 세상사 끝날 날이 없어도
꽃 떨어져 쓸 사람 없어도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보고 듣는 이 자체, 이~뭘까?

마하 반야 이~~ . 바라밀 야! 이~~~야!

경허 스님은 부시하물(復是何物) 다시 이뭘까?

그리고 붓을 던졌습니다.

법어 전문 바로가기

3월 3일(음력 1월 15일)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는 을사년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에 동안거 해제 법어를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종단 버팀목 법융 대종사, 속환사바하소서”

2월 18일, 원로회의장 영결다비
수행 행정 교육 두루 아우른 삶
“사라짐 아닌 본래 자리로 회향”
부산 미타선원서 49재 봉행해

하동 쌍계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원로의원 지하당 법융 대종사의 영결식이 2월 18일 쌍계사 팔영루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조계종 원로의원 지하당 법융 대종사의 영결식이 2월 18일 쌍계사 팔영루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 금정총림 방장 정여 스님을 비롯해 명예원로의원 일응 스님과 법타 스님, 원로의원 도후·보선·철웅·세민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호계원장 정묵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종단 교역직 스님들도 참석해 법융 대종사의 수행과 원력을 기리며 추모했다.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은 영결사에서 “법융 대종사는 생사대사를 해결하고자 출가해 수행과 행정, 교육을 두루 아우르며 종단이 나아갈 길을 몸소 보여 준 조계종의 버팀목”이라며 “대종사가 없는 사바세계는 허전하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사부대중의 길잡이로 남아 있다”고 추모했다.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보선 대종사의 대독을 통해 법어를 전했다. 성파 스님은 생사의 무상함을 시구로 설하며 “어제는 분명히 함께 있었으되 오늘은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삶의 이치”라면서도, 이는 사라짐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감임을 일깨웠다. 이어 “조계의 맑은 물로 달인 조주청다를 올리오니, 무생락과 삼매락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에서 “어떤 소임을 맡아도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온 선지식”이라고 추모했다. 진우 스님은 “법융 대종사는 군승과 여러 사찰의 주지,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등 종단의 다양한 소임을 맡아 비구 비구니와 재가불자 모두에게 지혜의 등불이 돼 왔다”며 “번뇌 속에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준 자비와 비심의 수행자였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조사에서 “법융 대종사는 종단의 깊은 법등이자 백년대계를 염려하던 큰 어른이었다”며 “중앙종회의원과 의장, 중앙승가대 총장 소임을 통해 종단 안정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추모했다. 이어 “모든 소임을 내려놓은 뒤에도 참선 정진을 멈추지 않은 수행자의 모습은 후학들에게 용맹정진의 경책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영결식에 이어 봉행된 다비의식은 거화의식으로 시작됐다. 사부대중은 다비장을 돌며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고, 불길 속에서 법융 대종사의 법구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로 마지막 예를 올렸다. 다비는 염불 소리 속에 고요히 회향됐으며, 사부대중은 대종사의 속환사바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한편 법융 대종사의 49재는 부산 미타선원에서 봉행된다. 초재는 2월 20일, 2재는 2월 27일, 3재는 3월 6일, 4재는 3월 13일, 5재는 3월 20일, 6재는 3월 26일, 막재는 4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마하사 사찰림 수용 ‘절차 위법’ 판결 확정

2월 12일 상고 기각…수용 절차 효력 상실


대법원이 부산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마하사 전경.

대법원이 부산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마하사 전경.

대법원이 부산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2월 1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재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마하사 사찰림 수용 절차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17일, 마하사가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하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은 최종 결론이 됐다.

법원은 문제의 토지가 1988년 전통사찰로 지정된 이후, 1989년 경내지 확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할 관청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전통사찰보존지로서의 법적 지위는 연속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부산시의 행정 처리 과정도 함께 판단했다. 부산시는 1996년 해당 토지를 전통사찰 경내지로 인정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했고,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사찰보존지 수용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실제 수용재결 과정에서는 관련 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 수용이나 사용, 제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를 위반한 이번 수용재결이 관련 법령에 반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이나 실시계획 고시가 유효하더라도,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면서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됐다.

마하사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와 사찰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마하사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전통사찰보존지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도림사, 신문지 봉투로 설 풍경 바꾸다

3천여 개 제작해 가게에 전달
장 보는 과정서 비닐 사용 감소



부산 지역 제1호 녹색사찰 도림사(주지 정찬 스님)가 설 명절을 맞아 신문지를 재활용한 봉투 3000여 개를 제작해 동래시장 내 과일 가게와 참기름 가게에 전달했다.〈사진〉 도림사가 전달한 봉투는 명절 기간 실제 장보기 현장에서 사용되며 비닐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도림사가 제공한 신문지 봉투는 장바구니를 지참한 손님에게 과일이나 참기름을 담아 주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봉투를 장바구니 안에 넣어 전달하면 별도의 비닐 포장이 필요 없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봉투 활용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지 봉투 제작은 별도의 재료나 비용 없이 간단한 접기 방식으로 가능하다. 도림사에서는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제작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림사 스님들이 직접 접는 방법을 전수해 왔다. 설 명절 이후 정초기도 입재가 진행된 2월 21일에도 신도들이 다시 모여 신문지 봉투를 접으며 실천을 이어 갔다.

주지 정찬 스님은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쉽게 적용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자 해사 생도 임관 축하 법회

2월 25일, 16명 졸업 · 임관



해군사관학교 제80기 불자 생도들의 졸업 및 임관을 축하하는 법회가 2월 25일 진해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법당과 해군회관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16명의 불자 사관생도를 비롯해 스님과 군 관계자, 불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육군 제2작전 사령부 현조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관세음보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장교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생도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유혜성·이윤정 생도, 진각종 통리원장상은 박준영·김동률 생도, 진해불교사암연합회 회장상은 김상훈·김영준 생도가 수상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개금복지관, ‘ESG센터 부산진구’ 개소

2월 19일 개소식



사단법인 안국 개금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수불 스님, 이하 개금복지관)은 2월 19일 복지관에서 부산시 ‘15분 도시 부산’ 시책사업의 일환인 ‘우리동네 ESG센터 부산진구’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

‘우리동네 ESG센터 부산진구’는 총사업비 3억3000만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노인 일자리 220개를 창출해 폐플라스틱 수거 및 업사이클링 등 자원순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수불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일은 죽어 가는 생명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고운사 경전교육 연수 안내
강성 큰스님 대승기신론 마지막 강의
안거를 마치고, 믿음의 근원을 다시 밝히는 귀한 자리. 대승불교 사상의 정수 (대승기신론)을 일심(一心)·이문(二門)·삼대(三大)·사신(四信)·오행(五行)의 구조로 체계적으로 회향합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분부터 오랜시간 함께해온 도반들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서 ‘믿음의 근본’과 ‘보리심의 일념’을 되새기며 깊고 원만한 법연(法緣)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70(2026)년 3월 9일(월요일)~3월 12일(목요일) 오후 1시~5시 20분
- 내 용 : 1강연당 4시간, 4강 진행
- 장 소 : 고운사 화엄전(템플관 1층 강당)
- 모집인원 : 50명(수강료 선입금자 선착순)
- 수 강 료 : 15만원 ※교재비 8만원 별도
(계좌번호 : 농협 729-01-127310 고운사)
- 전화접수 : 010-516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 운 합장

“세연 대종사 원력·정진, 이어 가겠습니다”

전등사, 영결 · 다비식 엄수
스님 유훈 되새기며 추모
“계속되는 염불과 기도가
큰스님께 올리는 참 회향”

강화 전등사=여수령 기자

전등사 조실 정암당 세연 대종사의 영결식이 2월 20일 강화 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에서 문도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서 정암당 세연 대종사 서운문도장 장의위원장 여암 스님(전등사 주지)은 “세연 대종사께서는 후학들에게 흐트러짐 없는 가장 모범적인 승가상을 보여 주셨다”며 “전등사와 인연 지어진 사부대중은 대종사의 원력을 몸과 마음에 간직해 대종사께서 이루고자 했던 대자유의 경계를 반드시 체득하고자 각고의 정진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추도사에서 “수십 년 전 스님께서는 손가락 마디를 불살라 중도의 가르침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는 스님의 입적으로 금생에서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원력과 정진의 교훈을 얻고 있다”며 스님의 수행 정신을 기렸다.

보장사 회주 도진 스님은 조사에서 “오늘 우리는 큰스님을 슬픔으로 떠나보내기보다, 큰스님께서 평생 지켜오신 염불과 기도를 함께 이어 가야 한다”며 “그 마음이 곧 큰스님께 올리는 가장 참된 회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룡 전등사 신도 대표는 “스님께서 보여 주신 삶 그 자체가 남은 우리에게는 수행의 좌표가 되고 친절한 안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 주신 적멸의 법문에 삼가 찬탄 올린다”고 조사를 했다.

영결식 후 여암 스님은 참석 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오늘 스님 법구를 다비하는 의식에서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그 수행의 덕화를 전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영결식 후 스님의 법구는 전등사 다비장으로 이운돼 사부대중의 추모 속에 다비가 진행됐다.

한편, 세연 대종사의 49재 중 3재는 3월 8일(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 4재는 3월 15일(대구 유가사), 5재는 3월 22일(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 6재는 3월 29일(정릉 봉국사), 막재는 4월 5일(전등사 무설전) 봉행된다.



전등사는 2월 20일 조실 세연 대종사 영결·다비식을 엄수했다.

세연 대종사는 서운 대종사를 은사로 1962년 출가해 1963년 사미계, 1971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2년부터 18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1만 번 ‘준제다라니’를 염송하는 주력기도에 매진했다. 이후 원주 구룡사, 김포 약사사 등에서 500일 기도, 영동 삼봉산 토굴에서 10년 정진을 이어 갔다. 조계종 제8대 중앙종회의원과 양주 흥국사·현풍 유가사·강화 전등사·성남 장경사 주지를 역임했다.

2012년 강화 전등사 조실로 추대돼 후학과 신도들을 제접했다. 2018년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품계를 품수했다. 최근까지도 시자 없이 전등사 극락암에 주석하며 직접 빨래하고, 점심을 제외한 공양도 몸소 해결했다. 2월 16일 “육십 년 지혜검 찾으러 남북동서로 쏘다니다 준제지송 칠천만 번에 업장 소멸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네”라는 열반송을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법랍 63년, 세수 86세.

‘고불매’ 꽃망울…백양사에 내린 봄소식

수령 350년 홍매화 개화
3월 28일 고불매축제 개최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장성 백암산 자락 백양사 천연기념물 ‘고불매(古佛梅·사진)’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본격적인 개화를 알렸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에 따르면 경내 우화루(雨花樓) 옆에 자리한 고불매가 최근 내린 봄비 속에서 연분홍빛 꽃망울을 드러내며 산사에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빗방울을 머금은 꽃망울은 모진 겨울을 이겨낸 고목의 기품을 고스란히 보여 주며 상춘객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백양사 고불매는 수령 350년, 나무 높이 5.3m의 홍매로 2007년 10월 8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매년 3월 말경 연분홍빛 꽃을 피우며, 은은하면서도 짙은 향기로 경내를 가득 채우는 것이 특징이다.

백양사는 오는 3월 28일 ‘고불매축제’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봄맞이에 나설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사암연합회, 병오년 신년하례

2월 23일, 각원사서



천안사암연합회(회장 도언 스님)는 2월 23일 천안 각원사 관음전에서 병오년 신년하례를 봉행하고 지역 포교 활성화를 다짐했다.〈사진〉

연합회 원로의장 대원 스님과 원로의원 인봉 스님, 회장 도언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들은 법회에 앞서 각 원사 조실 경해 법인 대종사를 예방했다. 법인 스님은 “전생 인연으로 천안에서 종사 생활을 하는 줄 알고 꾸준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어 스님들은 관음전에서 맞절을 나누며 새해 인사를 하고 지역 불교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회장 도언 스님은 “태국과 베트남 사찰 동참으로 연합회 외연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도언 스님은 연합회 운영 강화를 위해 부회장직을 보강키로 하고 탄문 스님을 부회장에 내정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오대산 월정사, 병오년 신년하례법회

2월 21일 대법륜전서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2월 21일 대법륜전에서 ‘2026년 병오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교구 주요 사찰 스님과 신도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유상범·허영 국회의원,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심재국 평창군수 등 각급 기관·단체장 등 사부대중 500명이 참석했다.

정념 스님은 법어에서 종교계가 직면한 탈종교화와 지역 소멸, AI 전환의 흐름을 언급하며 “종교가 AI 시대에 어떤 담론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정사는 올해를 종무행정 전반의 ‘AI 전환 원년’으로 삼고 데이터와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화엄사, ‘화엄성중’ 7일 정근…사천왕 헌공으로 회향

7일 간 새벽 5시 사천왕문서
2월 25일 회향…200명 동참
축원 · 범패의식으로 안녕 발원



화엄사는 경내 사천왕문에서 ‘화엄성중’ 7일 정근을 진행했다. 기도 정근은 2월 25일 회향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가 2월 25일 새벽 5시 사천왕문 앞에서 7일간 밤낮없이 이어진 ‘화엄성중(華嚴聖衆)’ 정근기도를 ‘사천왕헌공’ 의식으로 원만 회향했다.

이번 회향은 각황전에서 7일 동안 단 한 순간도 끊이지 않았던 목탁 소리에 맞춰 이어진 정초 기도의 결실을 헌공 의식으로 마무리한 자리다.

화엄사만의 특별한 기도 전통으로 꼽히는 ‘7일 24시간 정근’은 각황전에서 스님들이 번갈아 ‘화엄성중’을 염송하는 수행으로, 도량을 지키는 신중 기도의 정수를 보여 준다.

사천왕 헌공은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사천왕(지국천왕·증장천왕·광목천왕·다문천왕)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사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고 도량을 청정히 보호하는 외호(外護)의 상징적 공간으로, 수행자와 신도들이 삿된 기운을 여의고 맑은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길 발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날 회향에는 주지 우석 스님을 비롯한 범패의식 스님들과 사중 스님, 7일간 함께 정진한 신도 200여 명이 동참했다. 스님과 신도들은 각황전에서 이어 온 기도를 마친 뒤 새벽녘 사천왕문으로 이동해 헌공 의식을 봉행했다.

화엄사는 정초기도를 한 해 수행과 삶의 방향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기도로 여긴다. 새해 초 쌓은 공덕으로 한 해를 살아간다는 믿음 아래, 주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에 나선다. 이번 기도 역시 7일간 24시간 쉼 없이 이어지며 도량을 밝히는 수행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석 스님은 회향 인사말에서 “정초기도와 사천왕헌공에 동참해 7일간 한마음으로 정진해 주신 신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화엄성중 정근은 화엄법계의 모든 성중께 귀의하며 도량을 청정히 하고, 우리 모두의 서원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정근은 개인의 소원을 넘어 사부대중이 함께 쌓은 공동체의 공덕”이라며 “이번 기도의 원력으로 올 한 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7일간 기도에 동참한 김선익 포교사는 “오랜 전통 속에서 기도 정진을 회향해 마음이 한층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 원오사, 베트남 교민과 ‘설 축제’

2월 17일, 5000명 동참
광주 길상사 5월 개원 예정



천안 베트남 사찰 원오사(주지 뜨엉탄 스님)는 2월 17일 경내 일원에서 교민 5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베트남 설 축제 2026’을 봉행했다.〈사진〉

송년 의식과 신년맞이 의식, 삼귀의례, 경전 독송 및 축원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베트남 교민들은 새해의 평안과 복덕을 기원했다.

주지 뜨엉탄 스님은 “차가운 날씨와 먼 길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설날 사찰을 찾는 전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욕망과 유혹 속에서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지만, 수행을 통해 깨어 있는 마음을 유지할 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며 “부처님의 말씀처럼 방일함 속에서도 늘 정진하고 깨어 있는 삶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회 후에는 베트남 불교의 전통 신행 의례인 ‘오색실 축원’이 진행됐다. 뜨엉탄 스님은 불자들의 손목에 오색실을 묶어 주며 한 해의 건강과 평안을 축원하고, 베트남 설 풍습에 따라 세뱃돈을 전달하며 새해의 복과 풍요를 기원했다.

이어 베트남 전통 민속놀이와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졌다. 교민들은 서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한편, 원오사는 광주 지역 포교를 위해 오는 5월 31일 개원을 목표로 말사인 길상사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길상사에서도 설 법회를 여는 등 지역 베트남 교민들의 신행 활동을 돕고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분당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수료·입학식

2월 22일 지관전서
명상전문가 70명 배출



분당 대광사 부설 (사)행복명상 명상상담대학(학장 경혜 스님, 대광사 주지)은 2월 22일 경내 지관전 3층에서 ‘2025년도 수료식 및 2026년도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수료식에서는 전문과정(1급) 21명, 기본·심화과정(2급) 49명 등 총 70명의 학인들이 학사모를 쓰며 명상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학장 경혜 스님은 수료생들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전달하며 그간의 지난한 정진을 격려했다.

명상상담대학에서 배출된 명상전문가들은 대광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명상지도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학장 경혜 스님은 “긴 시간 동안 쉼 없이 정진하여 오늘 수료의 기쁨을 안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명상상담대학에서 배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내면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우리 사회를 맑히는 참된 명상 전문가로 활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본교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가 명상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에 의해 개교됐다”며 “부처님은 ‘행복은 결코 조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이러한 가르침을 담은 말이 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설명했다.

수료식 직후에는 ‘2026년도 명상상담대학 신입생 입학식’이 이어졌다. 올해는 기본과정생 40명이 입학 허가를 받아 명상과 상담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승가대학 졸업식

2월 12일, 경내 설법전서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는 2월 12일 경내 설법전에서 ‘율학승가대학원(제9회 연구반, 제12회 전문반) 및 동화사 승가대학(제23회)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졸업식에서는 율학승가대학원 연구반 2명(선정 스님·성진 스님), 전문반 12명(도연 스님 등), 승가대학 3명(도만 스님 등) 총 17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주지 선광 스님은 “나 혼자의 해탈에 머물지 말고, 고통받는 이들을 건져 올리는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의 현장으로 당당히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정초 삼사순례

2월 22일, 직지사 등 참배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의 대표 신행모임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는 2월 22일 ‘병오년 정초 삼사순례’를 진행했다.〈사진〉

350여 명의 순례단은 먼저 김천 직지사 만덕전을 찾아 직지사 기획국장 덕현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고 〈금강경〉을 합동 독송했다.

이어 영동 반야사로 자리를 옮긴 순례단은 석천계곡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으며 보은 법주사를 참배한 사부대중은 미륵대불 앞에서 탑돌이를 하며 순례를 원만히 회향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빛 비추니 숨겨진 아미타부처님 형상 나투네

법응 스님, '나무아미타불명 투광경' 시연회

15~16세기 중국서 제작 추정
2022년 美 신시내티미술관서
가치 재발견되며 유물에 주목
전 세계 5점뿐…투영은 3점만
"용도는 미상, 연구 더 필요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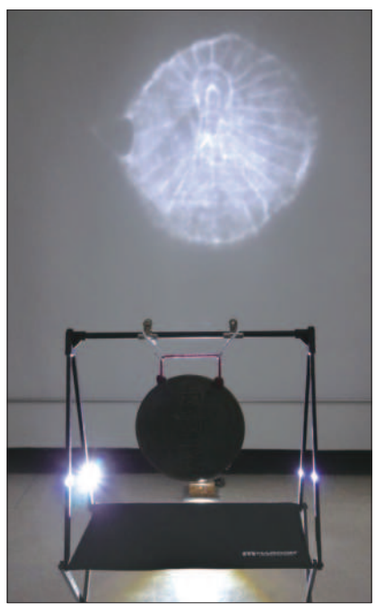
불 꺼진 스튜디오에 설치된 청동거울에 빛을 비췄다. 이내 스튜디오 벽에는 음각돼 있던 아미타부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아미타부처님의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이 뚜렷했고 전체적인 형상도 확인됐다. 앞면에는 '나무아미타불' 명문이, 뒷면에는 거울로 된 '투광경'의 실물이 한국에 시연·소개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2월 23일 서울 삼빛스튜디오에서 '나무아미타불명 투광경 시연회'를 개최했다.

법응 스님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입수한 '나무아미타불명 투광경'은 직경 21.5cm, 두께 6mm의 청동거울이다. 15~16세기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투광경은 거울 정면에 빛을 비추면 부처님 형상이 투영되는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다.

유사한 유물이 '마법 거울(매직 미러)'로 한국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2022년 3월 19일에 외신을 통해서다. 당시 미국 신시내티미술관 쑹 허우메이 큐레이터에 의해 해당 유물의 가치가 재발견됐으며 이후 퍼트넘 미술관도 조사해 투광경 유물을 세상에 알렸다.

투광경은 전 세계 23점만 존재한 희귀한 문화유산으로, 특히 불교 관련 투광경은 중국 상하이박물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미국 신시내티미술관 등에 5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마저도 투영이 되는 문화유산은 3점뿐이다.


2월 23일 서울 삼빛스튜디오에서 열린 '나무아미타불명 투광경 시연회'에서 투광경 정면에 빛을 비추니 숨겨졌던 아미타부처님이 투영됐다.

법응 스님은 입수한 투광경이 미국 신시내티미술관 소장 투광경과 동일 작가가 제작한 유물이라고 봤다. 스님은 "신시내티미술관 투광경 관련 뉴스를 접하고 동일 기능의 유물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노력 끝에 동일한 형태·기능의 유물을 입수했고 종교·문화·미술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한 기능이 있기에 신시내티미술관 투광경과는 같은 시대, 같은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시내티미술관에서 복제품을 만든 적도 없고 아니면 똑같이 금형을 떠야 하는데 이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 23점 밖에 없는 희귀 유물이기에 관련 연구가 미진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법응 스님은 "일본에 있는 투광경에는 십자가를 새긴 것도 있다. 이는 기독교 박해를 피해 신앙생활을 이어 가기 위한 일본 기독교인들의 노력이었다"면서 "투광경의 용도는 순수하게 신앙적인 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구체적으로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용도로서 활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사업단-CIA, 사찰음식 세계화 '맞손'

2월 12일 업무협약 체결
교육 등 공동 협력하기로

한국의 사찰음식 세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하이드파크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요리교육기관 '미국 요리학교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이하 CIA)'와 한국 사찰음식 교육 및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CIA 교육과정 내에서 한국 사찰음식과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강연, 워크숍, 교수진 및 학생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채소, 곡물, 허브,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식물성 중심의(Plant-forward) 조리 교육을 통해 사찰음식이 지닌 철학과 지속가능한 식문화 가치를 세계 요리 인재들에게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사찰음식 문화와 전통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한국 전통 사찰음식 정신과 조리 원리를 현대 요리 교육에 접목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나아가 공동 연구와 자료화 사업을 통해 교육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과 브렌던 월시(Brendan Walsh) CIA 학장, 양종집 CIA 교수,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한국 사찰음식 및 한식의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했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사진 오른쪽)과 미국 요리학교 CIA의 브렌던 월시 학장이 한국 사찰음식 교육 및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한 몸 한 마음의 큰 사랑

⑪ 동체대비(同體大悲)

同 體 大 悲

일연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 '감통' 편에는 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걸인 여인을 구한 정수 스님의 이야기가 전한다.

제40대 애장왕 때, 승려 정수는 황룡사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쌓이고 날이 저물 무렵, 그는 삼랑사에서 돌아오다 천엄사 문밖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갓 아이를 낳은 걸인 여인이 추위에 얼어 죽기 직전의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이를 본 정수 스님은 지체 없이 여인을 안아 체온으로 녹였다. 한참 만에야 여인은 겨우 숨을 되찾았다. 그는 곧 자신의 옷을 벗어 모녀에게 덮어 주고, 자신은 맨몸으로 절로 돌아와 거적을 걸친 채 밤을 지냈다. 그날 밤 궁궐 뜰에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황룡사의 승려 정수를 왕의 스승으로 봉하라"

왕이 사람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니 모든 경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왕은 예를 갖추어 정수 스님을 궁으로 맞아들여 국사로 책봉하였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음에 몰린 모녀를 보고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옷을 벗어 구원한 정수 스님의 모습은 깊은 울림을 남긴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다. 머리로 따지기 전에 가슴이 먼저 움직였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온몸으로 감싸안은 동체대비의 실천이었다.

〈맹자〉에도 이와 상통하는 대목이 있다. 맹자는 사람이 타인의 위급함을 보면 자신의 일처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비유를 제시한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순간을 목격하면, 누구든 놀라 달려가 구하려 할 것이다. 그 행동은 아이의 부모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타인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를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곧 타인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라 한다. 동체대비와 불인인지심은 어떤 조건이나 보상도 전제하지 않는 무연자비(無緣慈悲)의 한 표현이다.

동체대비는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자애심이지만, 그 바탕에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의 법칙성에 근거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 역시 수많은 사람과 자연의 도움으로 태어났고 살아간다. 모든 존재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불일불이(不一不二)의 한 몸[同體]이다. 그러므로 자비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존재의 이치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보편적 실천이다.

"중생이 아프니 나 또한 아프다"라고 한 유마 거사와 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의 뜻 역시 한 몸 한 마음에서 우러난 큰 사랑이다. 동체대비는 존재의 근원적 연관성 위에서 드러나는 큰 사랑의 실천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제6회 불교 달력 사진·미술 작품 공모

도반HC, 3월 31일까지 접수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대표 원명 스님)가 '제6회 불교 달력 사진·미술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품의 주제는 지난해와 같은 '불교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달력으로 제작 가능하고 불교의 정서를 반영한 사진이나 미술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사계절의 흐름이 느껴지도록 구성하거나 하나의 주제를 정해 12컷(12점)으로 완성도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캘리그래피, 일러스트, 판화, 수묵화, 어반스케치 등 다양한 창작 방식의 작품도 응모 가능하다.

출품 작품은 가로·세로 400mm 이상, 해상도 300dpi 이상의 이미지 파일(jpg, jpeg, png)이어야 하며, 수작업 작품의 경우 고화질 스캔본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는 4월 10일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대상 1명(팀)에게는 상금 1000만원, 금상 1명(팀) 300만원, 은상 최대 2명(팀) 각 200만원, 동상 최대 2명(팀) 각 100만원, 입선작에는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구글폼(https://forms.gle/YeJoQCdBFnb worer9)을 통해 작품을 응모하면 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응모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신중일 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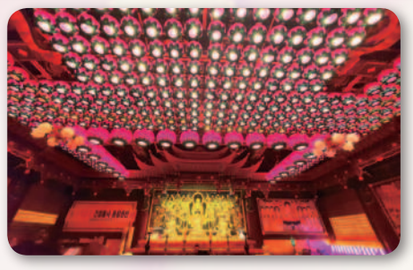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연화등

공단등





불국사 대웅전, 올해 해체 수리 추진

국립문화유산硏, 중점 관리 모니터링 결과 보고

지난해 국보 보물 24건 점검
불국사 대웅전 등 3건 '수리'
보현사 낭원대사탑비도 해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불국사의 중심 전각인 대웅전이 올해 중으로 해체 수리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 이하 연구원)은 2월 12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중점 관리 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 및 2026년 계획 보고'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2015년부터 국보, 보물 등 주요 문화유산 중 중점 관리 대상 20~30건을 선정해 구조 안전, 보존과학, 생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호(A) △경미 보수(B) △주의 관찰(C) △정밀 진단(D) △보수(E) △긴급 조치(F) 등급으로 평가한다.

지난해에는 국보 13건, 보물 11건 등 총 24건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경주 불국사 대웅전(보물)을 비롯해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보물),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국보) 등 3건이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21건은 주의 관찰인 C 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1년 보물로 지정된 불국사 대웅전은 절의 중심 불전(佛殿)으로 앞에는 8세기 통일신라 미술의 정수가 담긴 국보 다보탑(동쪽)과 석가탑(서쪽)이 각각 세워져 있다. 임진왜란 당시 소실돼 조선 영조 시기인 1765년에 중창됐지만 건물 하부의 초석, 기단 등은 신라시대 조성 당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불국사 대웅전 곳곳은 적지 않은 손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대웅전 내부 동측 대량(大樑, 작은 들보의 하중을 받기 위해 기둥 사이를 건너지른 큰 들보)이 파손됐으며 지난해 2월에는 마룻보와 근접한 반자(지붕 밑을 편평하게 해 주는 구조물) 부재 일부가 탈락되기도 했다.

연구원은 "대량 및 종부 손상과 연계된 손상으로 판단되며 해체 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올해 중으로 건물 구조를 해체 수리하는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국사 대웅전 전경.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중점 모니터링 결과 수리가 요구되는 'E' 등급을 받았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낭원 대사(834~930)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는 비석의 몸체가 기울고 비석을 관통하는 균열이 확인됐다. 연구원은 "탑비의 추가적인 변형이 우려돼 올해 중으로 해체 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흙으로 만든 벽돌을 이용하여 쌓아 올린 탑인 전탑(塼塔) 중 가장 크고 오래된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은 5년 연속 E 등급을 받았다. 1940년대 일제가 탑 주변에 중앙선 철로를 놓으면서 오랜 기간 기차가 오갔는데, 2021년 철로를 철거한 이후 탑이 북서쪽으로 35㎜ 정도 기우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옥개부 전돌에 균열이 생겼으며 기단 시멘트 모르타르가 파손됐다.

다만 최근 구조 변위 진흥은 없고 안정적인 상태여서 안동시와 함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치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3월 중 모니터링 결과를 유관 부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오는 6월 중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올해 국보 13건, 보물 12건 등 25건의 문화유산을 중점 모니터링한다. 점검 대상에는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 공주 갑사 대웅전(보물), 강진 해남윤씨 추원당(보물)이 새로 포함됐다.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유리 너머 만난다

종로구, 석탑 내부 일반 공개
3월 4~15일, 사전예약 접수해
보호각 설치 후 27년 만 처음


2월 20일 진행된 원각사지 십층석탑 사전 공개회 현장. 사진=종로구청

보호각 속에 있는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직접 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탑골공원 내 국보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내부를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1999년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 보호각을 설치한 이후, 시민이 석탑 바로 앞까지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1467년 세조 재위 당시 왕실 발원으로 건립된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화강암이 주류인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드물게 대리석으로 조성된 희귀 유산이다. 탑신 곳곳에 새겨진 정교한 불·보살상과 문양은 당대 불교미술의 정수로 꼽힌다.

하지만 보존을 위해 설치한 유리 보호각은 두꺼운 유리와 빛 반사로 인해 세밀한 관람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결로 현상과 통풍 불량을 유발해 석탑의 물리적 훼손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방에 앞서 종로구는 2월 20일 정문헌 구청장을 비롯해 이종찬 탑골공원 성역화추진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공개회를 열고 현장 점검을 마쳤다.

해설은 성균관대학교 동아리 '역사좀아일'이 맡는다. 아일랜드 더블린의 시민 주도형 투어를 접목한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성균관대학교 2025 S-Global Challenger 대상' 등을 수상하며 이미 실력을 인정받았다.

관람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통해 2월 23일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종로구 문화유산과(02-2148-2043)로 하면 된다.

신중일 기자

한마음선원 신행과 봉암사 결사 정신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오는 3월14일 안양본원서

한마음선원 신행 양상 속 봉암사 결사 정신의 면면을 조명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오는 3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안양본원 3층에서 제26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교화행을 연구하고 불교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을 발표하는 계절발표회를 매년 4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계절발표회는 이산인문예술학당 대표 동광 스님을 좌장으로 두 가지 주제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경희 동국대 연구교수는 '법장 '십지품' 해석과 세친의 영향'에서 세친이 지은 〈십지경론〉과 법장이 지은 〈탐현기〉 '십지품'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봉암사 결사 정신 계승의 일면: 한마음선원의 법당 장엄과 신행 의례'를 통해 한마음선원의 신행 양상이 현재 조계종의 의례와 수행 양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1947년 봉암사 결사 정신 계승의 일면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논평은 동국대 특임교수 석도 스님, 박보람 충북대 교수,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맡는다.

한편, 대행선연구원의 계절발표회는 '한마음선원' 채널을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031-470-3277

신중일 기자

김성녀 교수, 3·1문화상 예술상 수상

3·1문화재단 수상자 발표
마당놀이 대중화 공로로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이사장 안동일)이 제정·운영하는 제67회 3·1문화상 예술상 수상자로 대표 불자 음악인인 김성녀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사진〉가 선정됐다.

김성녀 석좌교수는 1976년 데뷔 이후 50여 년간 연극, 뮤지컬, 창극, 마당놀이 등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가장 한국적인 연극 무대를 만들어 온 배우이며 연기와 노래, 춤이 모두 가능한 우리나라 대표 예인(藝人)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석좌교수는 2005년 1인 32역의 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 초연 이후 2025년까지 매년 국내외 40여 개 도시에서 300회 이상의 공연을 이어 왔다. 2005년 '동아연극상 연기상', '올해의 예술상', 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3' 등을 수상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파격적인 소재 발굴과 현대적 연출을 유도하여 창극을 한국 공연예술의 주류로 올려놓았다. 나아가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창극을 제작하였으며 다양한 전통의 소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창극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유럽의 권위 있는 연극 페스티벌을 통하여 창극의 정체성을 세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오늘날 '마당놀이'가 공연 문화의 한 장르로 자리 잡는 과정에도 그의 헌신이 지대했다. 1981년 새로운 장르로 출범한 마당놀이의 대표 연기자로, 45년 동안 2000회 이상의 공연과 2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마당놀이를 대중화하는 데 일조했다. 풍물놀이, 줄타기, 탈춤, 차전놀이, 윷놀이 그리고 소리, 몸짓, 연기 등 전통극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과 조화시켜 마당놀이의 정체성과 예술적 방향성을 확립한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

시상식은 3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렸으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신중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5~3/3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수심결	보조지눌/우득	뷰티플마인드	6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한글 금강경	우룡	효림	7	우리 단청 화첩	선웅/김지민 외	담앤북스
3	선명상 마음의 평화	진우스님 외	조계종출판사	8	자기를 바로 봅시다	성철	장경각
4	동자승 컬러링 100	용정운	조계종출판사	9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5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10	대안스님의 채소밥	대안스님	책책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님의 생애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6	세계종교둘러보기	오강남	현암사
2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7	번뇌와함께춤춰라	함현준	운주사
3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니까야강독1	각묵,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무비스님의 예불문	무비	조계종출판사	9	입보살행론	샨티데바/석혜능	부다가야
5	춤추는 스님 원효대사	정수일 글,그림	운주사	10	초역부처의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중세불교를 오늘에 다시 세우다




한국 중세불교와 역사교육
한국의 불교와 사찰
황인규 지음 / 도서출판 혜안
각 4만원, 4만5000원

역사교육 속 불교사 위상 회복
사찰 중심으로 조명한 한국불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40여 년간 한국 중세불교사와 역사교육 현장을 오가며 연구와 실천을 병행해 온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가 두 권의 역작을 동시에 내놓았다. 〈한국 중세불교와 역사교육〉과 〈한국의 불교와 사찰〉은 각각 중세 불교사의 구조와 의미를 재정립하고, 사찰이라는 구체적 공간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개를 입체적으로 조망한 연구서다. 두 책은 저자의 학문적 성과의 집대성이자, 역사교육 속에서 불교사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한국 중세불교와 역사교육〉은 고려와 조선을 중심으로 중세불교의 전개를 정리하고, 그것이 오늘의 역사교육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가르쳐져야 하는지를 논한다. 제1부는 고려 불교와 역사교육, 제2부는 조선 불교와 의승, 제3부는 전통사회와 한국사 교육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고려 불교를 단순한 '호국불교'나 '사원경제' 중심의 도식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선종 9산문의 전개와 조계종의 형성, 특히 보조 국사 지눌의 수선사 결사를 통해 드러난 사상적 혁신을 중세 사회 변동과 연결한다.

또 국사와 왕사 다음 지위로 왕실 불교를 주관한 내원당 감주와 비구니 도량인 정업원 등 왕실 불교의 제도적 장치, 대장경 조판과 대외 항쟁 역시 국가·사회·종교가 교직된 현장으로 해석한다. 조선 시대에 이르면 숭유억불 정책 속에서 불교는 제도적으로 위축되지만, 그 내면의 동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무학 대사의 왕사 책봉, 능침 사찰의 존속,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의승의 봉기는 그 단적인 사례다. 특히 기허 영규 대사의 금산전투 참여와 순교는 불교가 국가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승영 사찰 운영은 조선 후기 270년간 국가 수호와 불교 수호가 중첩된 현장이었다.

이 책의 또 다른 축은 교과서 서술 비판이다. 2차 교육과정기의 검인정 〈고등국사〉부터 최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불교사 서술은 정치사에 종속되거나 사원경제·유불 교체라는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로소 불교사와 불교문화가 독립적으로 서술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국가와 민족의 삶과 문화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불교와 사찰〉은 한국불교의 초기부터 성장, 전개 과정을 삼보사찰과 적멸보궁 등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조명한 책이다.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 '하나가 곧 일체'라는 원융 사상이 어떻게 공간과 제도로 구현되었는지를 사찰의 창건·이전·재편 과정을 통해 추적한다.

책의 1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신라 고승 자장의 진신사리 봉안과 후대의 이전·분장 과정을 실증적으로 구분하며, 통도사를 비롯한 적멸보궁 체계의 형성과 확산을 분석한다. 이러한 사리 신앙은 불교 외연 확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어 고려 후기 수선사와 사굴산문의 전개,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 결사 전통과 삼보사찰의 성립, 남북 접경의 조제암과 발해 사찰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따라 불교의 역사 지형을 복원한다.

저자는 두 책을 통해 우리 역사 속에서 불교가 형성해 온 공동체 정신과 사상적 기반을 오늘의 교육 속에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를 묻는다. 불교사를 '종교사'의 범주에 가두지 말고, 공동체 정신과 문화 형성의 핵심 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대승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불교와 에크리튀르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
운주사
2만8000원

경전, 구술에서 기록으로
매체 혁명이 낳은 '대승불교'

대승불교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교리와 사상의 내용 분석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시모다 마사히로 교수(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질문의 방향을 근본에서부터 전환한다. 대승경전이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해지고 성립했는가를 묻는 것이다. 구두(口頭)에서 서사(書寫)로 이어진 전승 매체의 변화가 곧 대승불교 탄생의 조건이었다는 파격적인 문제 제기다.

문자로 기록되기 전 불교의 가르침은 상황과 청중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개됐다. 전승자와 청취자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형성됐고, 암송과 반복, 공동체적 기억은 수행의 한 방식이자 진리의 보증 장치로 기능했다.

책의 핵심은 문자 매체의 등장 이후 나타난 구조적 변화에 있다. 가르침이 기록되고 보존되면서 텍스트는 고정된 권위를 획득한다. 저자는 이를 자크 데리다의 '에크리튀르(écriture)' 개념과 연결해 분석한다. '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의미를 재구성하고 권위를 생산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월터 옹의 구술·문자 문화 이론과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의 성전 연구를 교차 인용하며, 불교 경전이 어떻게 '성전'으로 자리매김했는지를 설명한다.

경전은 새로운 학습과 해석의 방식을 낳았고 수행 공동체의 구조까지 재편했다. 출가 승단 중심의 구전 공동체와 달리, 기록된 경전은 재가자도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저자는 이 지점에서 대승불교 운동의 사회적 기반을 읽어 낸다. 대승경전은 교리적 혁신의 산물이기 이전에 매체 혁명이 낳는 산물이었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저자는 경전 제작과 유통의 실천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즉 대승 교단이 성립했다고 말한다. 이는 대승불교를 사회적·매체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살아 있는 산물로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금강경〉 강설집 시리즈 완결



금강경 직지설법 3
김태완 지음
침묵의 향기
1만6800원

김태완 무심선원장의 〈금강경〉 강설집 시리즈 완결본이다. 3권은 '일체동관분'에서 '응화비진분'까지의 해설을 담고 있다.

조사선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이자, 2001년 무심선원을 개원해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저자는 "대승불교의 깨달음은 단계별 수행을 통해 이상적인 상태를 이루거나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 완전하고 무한한 본성을 그저 발견하도록 돕는 가르침"이라며 "〈금강경〉은 생각이 지어내는 꿈의 세계에서 깨어나도록 분별심을 부수며 생각 밖의 진실을 가리켜 준다. 생각에서 벗어나면 자기의 본래면목이 드러난다"고 강조한다.

법정 스님이 사랑한 모든 것



법정 스님이 사랑한 생활
백형찬 지음
파람북
1만9000원

백형찬 전 서울예대 교수가 법정 스님을 향한 깊은 그리움을 고백한 수필집이다. 가톨릭 신자인 저자는 1989년 순천 송광사의 '출가 4박 5일' 수련 프로그램 참가를 계기로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고 수필가로 등단했다. 책에는 풀과 꽃, 나무, 차, 음악, 그림 등 법정 스님이 사랑한 것들을 스님의 삶과 책에서 길어 올려 엮었다.

덕조 스님(길상사 주지)은 "스님의 정신을 오늘의 삶 속으로 다시 불러오는 이 책은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맑고 향기로운 삶의 안내서가 되어 줄 것"이라는 추천사를 남겼다. 책의 판매 수익금은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에 기부된다.

비건 철학자의 먹는 법, 사는 법



배고프고 아름다운 동물들
매튜 C. 할트먼 지음
이유림 옮김
한문화
2만원

누군가 '채식주의'를 선언한다면 가벼운 호기심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라면 식사 때마다 메뉴를 고민하거나 육식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등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이러한 불편한 시선을 전제로 '비건'의 세계로 안내한다. 미시간주 캘빈대학교 철학 교수이자 영국 옥스퍼드 동물윤리센터 연구원인 저자는 비건을 윤리적 의무나 금지의 언어로 설명하는 대신, 우리의 '먹는 선택'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다른 생명과 환경, 사회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짚어 낸다. 비건은 완성이 아니라 '되어 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다.



불교사상과 최신 생물학의 연관성을 탐구!
다르마와 DNA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DNA라는 구체적 실험 대상을 통해 불교의 명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불교 사상의 원리와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디 덴버 지음, 이동수 옮김/신국판/360쪽/값 24,000원

대승의 기원을 다룬 기념비적인 책!
불교와 에크리튀르
서양 인문학의 첨단 이론을 과감하게 접목하여, 대승불교의 역사를 사상사뿐 아니라 사회사의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신국판/480쪽/값 28,000원

일본 고승들의 벼락같은 가르침!
번뇌와 함께 춤춰라
일본 명승들의 수행과 구도의 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현대인들의 마음에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와 깊은 울림을 준다.
함현준 지음/국판변형/24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진관사, 조선 시학의 보고였다

〈寶庫〉



시로 짓다, 조선 1·2

박해진 지음 / 나녹 / 세트 7만5000원

태조~연산군 시학 흐름 고찰

천봉 만우·일암 학전 스님 행장

"사찰은 사유 압축된 지성 거점"



〈시로 짓다, 조선〉의 저자 박해진 씨.



조선 세종대왕의 명으로 사가독서당으로 지정됐던 서울 진관사는 매년 국행수륙재에 집현전 학자 6인의 위패를 모시고 추모재를 봉행하며 그 뜻을 기리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세종대왕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직무에 방해받지 않고 독서와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를 시행했다. 처음에는 재가 독서 형태였으나, 1442년(세종 24년)에는 독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진관사를 사가독서 장소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박팽년· 성삼문·신숙주·이개·이석형·하위지 등 집현전 학자 6명이 수학했다. 오늘날 진관사 입구에 '사가독서터' 표지가 세워지고 일대가 '한글길'로 조성된 배경이다. 진관사는 매년 국행수륙재에 이들 학사 6인의 위패를 모시고 추모재를 봉행하며 그 전통을 기리고 있다.

〈시로 짓다, 조선〉은 조선을 '숭유억불'이라는 도식으로만 이해해 온 통념을 넘어, 조선 전기 불교 시학 전통과 국가 언어 정책의 긴밀한 연관을 추적한 책이다. 저자는 진관사를 중심으로 전승된 시문 자료와 기록을 분석해, 불교 언해 사업과 출판 정책이 세종 대 국가 언어 정책과 맞물려 작동했음을 밝힌다.

조선에서 시(詩)는 하나의 문학 장르가 아니라 인재 선발과 정책 집행의 기준이 되는 '통치의 언어'였다. 저자는 훈민정음이 이러한 문장 질서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도구였고, 이 과정에서 불교가 지닌 언어철학과 수행 전통이 사유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또 진관사와 회암사 등 사찰은 당대 시학과 사유가 축적된 지성의 거점이었음을 밝힌다.

저자는 총 2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속에서 중국 시성(詩聖) 두보의 문학 전통이 조선 문장가들 사이에서 어떤 권위를 지녔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종 대 문학 정책과 훈민정음 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나아가 훈민정음 반포 이후 전개된 불교 경전 언해 사업, 사가독서제 시행, 시학 부흥 정책 등을 통해 조선 문자 문화의 발전 과정을 조망한다.

이 책의 또 다른 성과는 천봉 만우 스님(1357~1450?)의 행장을 복원한 대목이다. 행장에 따르면 만우 스님은 충주 청룡사에서 출가해 회암사 주지를 지냈으며 이숭인, 성석린 등과 교유했다. 특히 1447년 안평대군의 초청으로 91세에 회암사에서 인왕산으로 건너와,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의 제화시(題畫詩)를 남겼다. 저자는 일본 덴리대학 중앙도서관 소장 〈몽유도원도시화권〉의 '몽유도원도 찬시'를 촬영해 공개했다.

일암 학전 스님(1407~1500?)은 만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흥천사와 진관사, 장의사, 불암사, 패엽사를 중심으로 불법과 시학을 펼쳤다. 1442년 진관사 주지로 있으면서 사가독서를 통해 집현전 학자들과 교유했고, 이들이 지은 연구(聯句)를 채록해 〈진관요람〉을 펴냈다.

저자는 "천봉 만우와 일암 학전은 조선 초기 불교사의 핵심 인물"이라며 "특히 천봉 만우는 세종의 '시로 짓는 조선'을 도운 최고의 선지식"이라고 평가했다.

책은 1권에서 태조부터 세종까지, 2권에서 문종부터 연산군까지의 역사와 시학 흐름을 짚었다. 부록에는 천봉 만우 약전, 일암 학전과 교유한 문인들의 작품 목록, 진관사 사가수창 연구 4수 등을 수록했다.

저자 박해진 씨는 사진가로 활동하며 1998년부터 전통 건축 해체 보수, 정밀실측 현장을 기록해 〈선암사의 건축〉(2007) 등을 펴냈다. 2014년에는 신미 대사의 발자취와 훈민정음 창제사를 연구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 평전〉(2014)을 출간했다.

하루 한 장, 마음밭을 일구다



마음 글밭

원영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2000원

하루 한 장 필사로 일구는 마음밭

비움·회복·채움·실천의 100일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할 순 없다. 그러나 누구든 지금부터 시작할 수는 있다. 그리고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끝맺음하느냐, 이다."

– '시작보다 중요한 것'

속도의 시대, 가장 느리지만 가장 단단한 독서법인 '필사'가 주목받고 있다. 빠르게 훑어보고 넘기는 대신,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 쓰며 자기 안으로 들이는 묵직한 울림 덕분이다.

〈마음 글밭〉은 원영 스님의 문장 세계를 응축한 필사집이다. 제목처럼 '마음의 글밭'을 일구듯, 하루 한 장씩 100일 동안 문장을 따라 쓰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구성했다.

100일 여정은 다섯 단계로 나뉜다. '비움'에서는 오래 붙들고 있던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회복'에서는 상처 난 마음을 돌본다. '채움'을 통해 새로운 다짐을 쌓고, '실천'에서 이를 일상의 태도로 옮긴다. 마지막 '리셋'은 다시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다잡는 법을 기억하는 단계다.

중간중간 배치된 '쉬어가는 시간'은 간단한 질문과 명상 안내를 통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어떤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필사는 내 안의 깊은 곳에 씨앗을 심는 일이며, 그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도록 기다려 주는 일"이라는 원영 스님의 말처럼, 마음밭이 자비의 꽃으로 무성할 수 있도록 '100일 필사'를 시작해 보자.

여수령 기자

당신의 이기심은 깨어 있는가?



나는 이기적 스님이다

쿠바 탐디 지음

민족사

2만3000원

'나'를 구하는 현명한 이기주의

현대적 비유로 풀어낸 불교 교리

불교에서 '이기심'은 고통을 낳는 마음의 작용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라오스 숲속 사찰에서 정진 중인 쿠바 탐디(이선재) 스님은 신간 〈나는 이기적 스님이다〉를 통해 이 통념을 흔든다. 스님은 스스로를 '갈애(渴愛)와 집착을 안고 사는 이기적 존재'라고 고백하며, 수행자로서의 정직한 성찰을 건넨다.

저자는 오랜 시간 사회 현장에서 청년들과 호흡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25년간 일했고, 이후 라오스로 건너가 청소년센터 자원활동가로 일하다 숲속 절 '왓 빠 나쿤노이'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인도와 스리랑카, 네팔 등지를 순례한 후 현재 라오스 숲속 절 나쿤노이에서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사미들과 대화하는 쿠바 담디 스님. **사진 제공=민족사**

이 책은 수행과 순례의 과정에서 만난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를 참구하던 어느 날, 그 질문이 '나는 무엇인가'로 바뀐 것. 왜 인간은 이기적으로 살고 늘 싸우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던 중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만난다.

저자는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는 도킨슨의 선언을, 붓다가 고통의 근원으로 지목한 '갈애'와 나란히 놓는다. 유전자가 맹목적으로 자신을 복제하려는 경향성과, 갈애가 멈추지 않고 윤회를 지속시키는 힘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은 강력한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맹목적인 작용을 넘어 '깨어 있는 이기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과 자유를 얻는 길이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이미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에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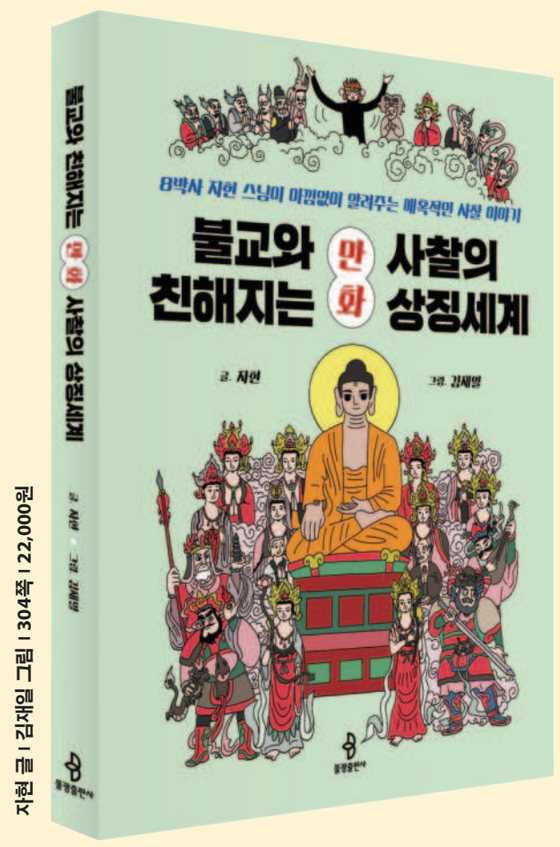
저자는 인간 욕망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도덕적 비난이나 죄책감 대신 이해의 출발선을 마련하고자 한다. 스님이 말하는 이기심은 탐욕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태도, 나로부터 삶을 바로 세우려는 '깨어 있는 힘'이다. 붓다 역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떠난 구도자였다. 내가 먼저 평온해야 자비도 가능하다는 '현명한 이기주의'가 이 책의 중심 메시지다.

저자는 욕망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욕망을 억누를수록 왜곡되어 드러난다는 점에서, 욕망이 작동하는 구조를 깨어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의 이익을 좇을 권리는 있지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권리는 없다"는 문장은 이기심의 윤리적 경계를 분명히 한다.

난해한 불교 교리를 현대적 비유로 풀어낸 점도 흥미롭다. '무아(無我)'를 설명하기 위해 홀로그램 공연을 예로 든다. 무대 위에는 분명 가수가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빛과 데이터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자아 역시 유전자와 환경, 기억이라는 데이터가 모여 형성된 일시적 구성물이라는 설명은, 추상적 교리를 생생한 이미지로 전환한다.

1부에서 불교의 교리를 설명했다며, 2부에서는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법을 안내한다. 이어 3부에서는 공존과 공생의 실천법을 제시한다.

여수령 기자



자현 글 | 김재일 그림 | 304쪽 | 22,000원

불교와 친해지는 (만화) 사찰의 상징세계



"불교와 친해지는 특급 마법이 시작된다!"

불교계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이 아낌없이 알려주는 매혹적인 사찰 이야기!

문체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세계 上·下』
그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만화로 다시 태어났다!

청소년도 재미있게 읽고, 성인도 새롭게 배우는 가장 쉬운 불교 인문학!
복잡한 설명은 줄이고 이야기와 재미는 더해
단지 즐겁게 만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교의 지혜와 세계관이 저절로 이해된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단 하루라도 온전한 나로 살아야

지금 이 세계戒

② 불편하지만 행복한 하루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편리의 시대를 살고 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손바닥 위의 스마트폰을 조금만 만지면 어떻게든 구할 수 있고, 처음 접하는 것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예전에는 발품을 팔아 이리저리 찾아보며 오랜 시간을 들여야 구할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뭐든지 편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요술 램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스마트폰이라는 요술 램프로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 정말 모두가 행복하고 부유하며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점차 무언가에 쫓기는 듯하고 이유도 모른 채 지쳐 가는 모순적 삶도 존재한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편하고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원인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면 단순한 소유를 넘어 그 과정까지 자신의 추억으로 남게 된다. 배움 역시 글자 하나, 문장 한 줄을 되새기며 힘들게 외우면 지식을 넘어 인내와 성취를 같이 얻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과정이 모두 사라져 버렸고, 과정의 중요성을 말하면 시대에 도태된 사람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니 점차 귀하고 소중한 것이 사라지고 있다. 쉽게 산 물건은 쉽게 사용되고 쉽게 버려진다. 편하게 얻은 것은 그때뿐이고 어느새 배운 기억조차도 사라져 버린다. 집 안에 물건이 가득하지만, 정작 쓸모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고,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정보를 찾아보지만 정작 기억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잠드는 순간까지도 스마트폰을 계속 지켜보지만 정작 스마트하게 도움이 되는 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는 요술 램프의 지니가 그 요술에 빠진 사람을 향해 "어떤 사람이든 세 가지 소원을 이뤄 준다고 하면, 두 번째 소원에서 스스로 타락하게 된다"는 말과 같다.

또한 과정이 없이 쉽게 얻다 보니 쉽게 빠져들기도 한다. 가히 지금은 '중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 하나를 알게 되면 그것에만 빠져 다른 것을 둘러보지 못한다.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온갖 약부터 산다. 하루에 몇 알의 약을 먹는지 모를 정도로 몸에 좋다는 약을 전부 사서 그것에 몸을 맡긴다. 운동을 하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운동에 관련한 수많은 장비와 상품부터 구매한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에서 보고 따라 하기 시작한 그것이 자신을 대변하는 것처럼 찬양의 말을 쏟아내다가 만약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대단한 학술적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다른 것에 빠져 그것을 했던 기억조차 못 한 채 관련 장비들은 집 안 어딘가에 쌓여 있게 된다.

속도 · 편리 중시 시대, 과정 소홀시
하나에 꽂히는 중독 폐해도 나타나

일상 방해 · 내팽개치는 중독의 집착
인욕으로 이룬 정진의 집중과 달라

불음주, 현대에선 중독 금지 가르침
투자 · 배움 · 운동 · 일 중독도 경계해야

불교에서는 인욕(忍辱)과 중도(中道)를 삶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긴다. 육바라밀에서 인욕은 정진(精進)의 바로 앞에 있다.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그것에 대해 섬세하게 준비하고 차근차근 익히며 성실하게 닦아 자신이 만족하는 곳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인욕이다. 인욕이 있을 때 바르게 정진할 수 있고, 정진을 해야 집중된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에 인욕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이다.

〈범망경〉의 '제44경계 부중경율계(不重經律戒)'에서는 "항상 대승의 경율을 지니고 독경해야 하는데, 자신의 살갗을 벗겨 종이로 삼고, 피를 뽑아 먹으로 삼고, 골수를 벼룻물로 삼고,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경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자신이 지금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해 간절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경전과 율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부중경율계)'는 계목으로 부르는 것이다. 또한 "나무껍질, 종이, 비단, 대나무, 헝겊에도 사경을 하여 지녀야 하며, 항상 칠보와 좋은 향의 꽃과 보배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모셔야 한다"고 하여, 자신이 배우고 익히는 경전을 귀하게 보관해야 귀한 가르침이 된다고 알려 준다.

영어사전이 귀하던 시절에 사전을 종이에 옮겨 적으며 공부하던 추억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듣고 싶은 가수의 앨범을 사기 위해 레코드 가게에 찾아가 어렵게 구해 집에 오는 내내 설레고 밤새도록 듣던 아름다운 청춘의 추억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단어를 찾고 음악을 검색해서 듣는 지금은, 같은 단어를 몇 번이나 다시 찾아보고, 그 노랫말이 뭐였는지 기억조차 남지 않는다. 게다가 어디서 찾아봤고 어디서 들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다. 편리에 의해 시간은 절약됐지만, 그 시간 속의 간절함과 추억도 덩달아 절약돼 버린 듯하다.

인욕이 있어야 정진이 생긴다. 그러나 정진의 집중은 중독의 집착과는 다르다. 지나치게 한 가지에만 빠져 그것이 지금의 모든 것이 되어 일상을 방해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조차 팽개치게 한다면 그것은 삶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다. 무언가를 시작해 차근차근 해 나가며 적응이 돼야 하지만, 요새는 지나치게 편협하고 한 가지에만 빠져 그것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이라 여길 정도다.

무언가에 빠져 집중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에 지나치게 빠지고 취해 버린다면 처음의 마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점차 변해 가게 된다. 술을 금지시키는 '불음주(不飮酒)'의 계율도 술 자체가 잘못인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셔 취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른 계율까지도 어기게 만들고, 그 자신조차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게 하기에 취하지 말라는 것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시대적으로 '중독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다. 게임, 도박, 술, 마약의 중독은 단어만으로도 잘못된 것이라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중독보다 무서운 것이 투자, 배움, 운동, 일 등의 중독일 것이다.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라 무엇이 문제인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잘 살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투자가 잉여의 돈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전 재산까지 무리하게 투자하며 큰 실패와 빚을 지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투자는 중독이고, 도박을 통한 일확천금의 허망한 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배움이나 운동도 자신이 하는 것만이 맞다고 여기고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다른 것을 하는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그것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빠져 지낸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 점차 지치고 피폐해진다. 이는 약물 중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일 또한 자신이 바라는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 일상에서 조화롭게 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명예를 추구하거나 부의 축적만을 생각해 무리하게 일만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만들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족이나 인연조차 살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이 사회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 일이 자신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자신이 자신답게 살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일인 것이다. 일을 하여 직위에 오르고 돈을 벌어 가족과 인연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일로 만들며 일상이 되어 자신의 법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데 일에만 빠져 그게 전부라고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훗날 자신의 주변에 인연조차 남아 있지 않은 외롭고 쓸쓸한 어느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자신의 하루를 살아야 한다. 이 하루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 속의 자신은 모든 일을 자기답게 하고, 책임과 마음을 다해 살아야 한다. 무엇이든 쉽고 편하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쉽게 잊히고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문명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발달 속에 편리함만 찾고 쉬운 것만 하려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편리의 발달에 밀려 버릴지도 모른다.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자기다운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중독의 집착이 아닌 정신의 집중으로 자신의 하루를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 그때 비로소 그토록 찾던 행복의 순간이 고개를 들어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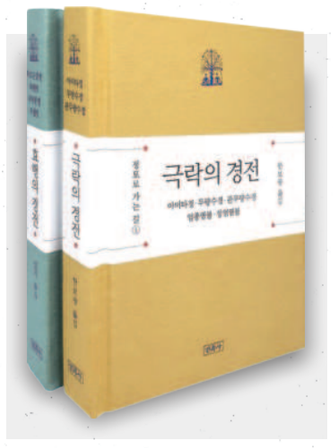
가장 따뜻한 위로, 마음을 밝히는 한 권의 경전
스테디 셀러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⑥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선광 스님은… 현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7년 조계사에서 혜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송광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3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사 총무국장, 동화사 총무국장, 호압사·안일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제16·17·1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11월 제31대 동화사 주지에 취임했다. 사진=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수행공동체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여수령 기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격랑을 지나 새로운 항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총림 해제라는 큰 변곡점을 겪은 뒤, 교구본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호국불교 위상 정립 원년' 선포, 사명 대사 체험관 준공,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국보 승격 추진, 승시(僧市)의 현대화 등 주요 현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건 동화사의 현재를 듣기 위해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가 2월 23일 주지 선광 스님을 만났다.

Q 취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선출되셨는데 소회가 궁금합니다.

교구장은 한 지역 불교 행정을 책임지고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막상 소임을 맡아보니 총림 해제와 교구본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얽힌 과제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어둡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화사 사부대중과 함께라면 충분히 새로운 길을 열어 갈 자신이 있습니다.

선거에서의 압도적 지지는 개인에 대한 신임이라기보다 '변화와 화합'을 요구하는 대중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개월은 동화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방향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깨는 무겁지만, 함께 가면 해낼 수 있습니다.

Q 교구본사로서 동화사의 정체성과 역할은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총림 해제는 분명 아픔이었지만 이를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행을 근간으로 하되, 교구본사 본연의 기능인 전법과 교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권위적인 구조보다는 소통을, 형식보다는 실질적 포교를 우선해 대구·경북 불교의 구심점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개혁은 무조건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소임자 스님들과 뜻을 모아 함께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해야 합니다.

Q 승려 복지, 투명 경영, 교구운영위원회 구성 등 공약 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삼보정재의 투명한 운영은 공약 이전에 상식입니다. 보시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보에 회향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계 시스템을 점검하고, 인사는 법계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주거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복지 체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 본·말사가 상생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본사와 말사는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호혜적 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본사가 우월적 지위로 지시하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Q 취임 후 특히 '화합하는 수행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흐트러짐 없이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신도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저는 매월 신중기도와 재일기도를 직접 집전하며 신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동화사는 20년 넘게 양력 초하루 법회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양식을 고려한 전통입니다. 매달 양력 초하루부터 3일간 '가정의 안녕을 위한 신중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음력 초하루 기도도 병행해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금강경〉 독경과 다라니 기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Q 앞으로 호국불교 사업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동화사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 대사가 영남승군을 이끌었던 호국의 총본영입니다. 봉서루에 걸린 '영남치영아문(嶺南緇營牙門)' 현판은

총림 해제 후 격랑…'변화' 염원 모여
직접 기도 집전…화합하는 수행공동체
삼보정재 투명 운영·본말사 소통 강화
'호국불교 위상 정립' 수륙재 정례화
위로와 쉼의 '열린 공간' 시민과 함께

승군 지휘부가 머물던 관아의 상징으로, 동화사의 위상을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올해를 '호국불교 위상 정립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명 대사를 비롯한 무명 승병의 넋을 기리는 호국영령 수륙재를 정례화하고, 봉서루와 관련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 운문사 등 호국 사찰을 연결하는 '호국 테마 탐방로'를 구축해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역사를 배우는 교육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동화사는 호국 도량인 동시에 약사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호국과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는 자비, 이 두 축을 함께 세워 가겠습니다.

Q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의 국보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축제인 '승시'를 비롯해 불교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통일신라 후기인 9세 중엽 조성된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국보로 승격된다면 동화사의 위상은 물론 지역 불교문화 진흥에도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승시는 불교문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승시를 단순한 장터를 넘어 스님들의 삶과 불교의 역사, 민중과 함께한 발자취를 보여 주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사명대사체험관, 개방형 수장고 등과 연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관람 환경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Q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 계획은 어떻습니까.

3월 준공 예정인 사명대사체험관을 중심으로 문화강좌와 명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동화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및 유관 기관과 협업해 축제를 열고 상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동화사를 닫힌 수행 공간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위로와 쉼을 얻는 도량으로 가꿔가겠습니다.

Q 출가자 감소와 신도 고령화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출가자 감소는 저출생과 사회 구조 변화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교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소하고 겸손하게 수행의 본류를 지키는 것,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해답입니다.

물질만능과 세대 갈등 속에서 부처님의 근본정신으로 시대의 문제를 녹여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 불교가 존재하는 가치이고 의미일 것입니다.

Q 대구·경북 지역 포교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입니다. 사찰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해야 합니다.

동화사가 자리한 팔공산은 202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습니다. 이에 걸맞게 자연환경 보존에 앞장서는 한편, 불교문화가 시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생활 불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 대구 보현사를 중심으로 지역포교 거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구·경북 시민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총림 해제 이후 동화사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동화사를 반듯한 수행공동체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며 하나씩 변화해 나간다면 염려와 걱정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불자들이 동화사를 찾을 때 기쁨과 환희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수행과 자비가 살아 있는 도량으로 만들겠습니다. 팔공산 자락을 넘어 그 자비와 지혜가 시민과 국민의 가슴에 닿도록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동화사의 걸음에 따뜻한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과 현대불교신문 한명우 대표이사가 2월 23일 동화사에서 대담하고 있다.



2월 12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열린 율학승가대학원 및 승가대학 졸업식.



동화사는 앞으로 역대 조사 다례재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2월 14일 봉행한 조계종 초대 종정 석우당 보화 대종사의 열반 69주기 다례재 모습.



동화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1일 '제야의 종 타종식'을 열고 불자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법석을 마련했다.



팔공산 동화사가 새롭게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봉행된 '국태민안 호국불교를 위한 유주무주고혼 및 애민영가 수륙대재 대설판'.

2026년 3월 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68호 | 14 | 전면광고

선업이 있으면 그 자체에 갖추어진 힘 때문에 좋은 업보를 받게 된다. 나라의 왕이 편들어 주는 힘이라 할지라도 업력에는 못 미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승장엄론》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산사
- 대지 : 200평
- 법당 : 70평 외 전각 2
- 시내 산 밑, 주차 10대
- 매가 : 35억

- 위치 : 경북 대구시 사찰
- 대지 : 240평
- 법당 : 70평, 요사 : 70평
- 시내, 주차 10대 가능
- 매가 : 9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명당 절터 안내

- 150평(실사용 평수 200평)
- 산 중턱 사계절 마르지 않는 약수물, 도로, 전기 완비
- 250m 앞 청정바다 보시면 감탄
- 가액 : 대출1천 5백 안고 1억 1천 만원
-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528번지

010-8643-5235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3198-1730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 대지 : 1000평, 건물 : 60평(건축6년)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베란다 40평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완비
- 주차장 500평(하천부지),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부득이 정리,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창원 마산 서성동 대로변 2층(마산 어시장 인접)
- 규모 : 2층 43평 법당 : 삼존불 방 : 2(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 1000 월 40
- 시설비 : 500 / 즉시법회 가능

010-9276-5829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산리 96-2
- 약 1000평부터 5000평까지 분할 매매 가능
- 탁트인 전망, 토목공사 전기 수도 완료 / 가람장소로 적합
- 가액 : 평당 60만원(절충가능)

010-8857-9889

토굴(급매)

- 위치 : 경북영주 생활권이 좋은 전망이 좋은곳
- 대지 : 82평, 마당 및 건물2동, 수리완비
-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 가액 : 9,200만원

010-5538-5570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1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3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찻집 운영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 종목 : 쌍화차 전문, 그외 수제차
- 가옥구조 : 건물 1, 2F 각 50평씩, 100평/권리금 유/조율가능
- 월세보증금 : 3000/150만(부가세별도) (보증금 조율가능) ※스님이 5년째 운영 중

010-2626-5155

스님, 처사님, 행자, 공양주보살 (75세까지 가능) 구함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꼭 읽어봐주세요 손도사성공론 책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010-5105-5000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 · 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 · 천도재 · 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필요하신 스님분들이나 무속인 분들 모셔드리고
나머지는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민불종 무료장학 모바일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 기간 : 26년 3월
- 자격 장소 : 남녀 누구나 집, 사암, 직장 등
- 학과 사주, 육효 한글작학등 25과 *사무장모집 / 요양사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인 환영*

D&M NAVER 역학대통령

907-5858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해썹(HACCP) 인 증 업 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문 닫자, 삶 열렸다”… 2070 아우른 무문관 수행 눈길



문경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 스님)이 무문관 수행 정진을 회향했다. 지난해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정진에는 20대 청년들부터 70대 어르신들과, 이웃종교인 등 각계 210명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문경세계명상마을 ‘무문관’

3차례 7일 집중 수행 회향
종교 · 직업 · 세대 넘은 ‘호응’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서 회복의 새 모델 제시“인생을 뒤흔드는 변화, 문을 닫았을 뿐인데 삶이 열렸습니다.”

문경세계명상마을이 운영한 7일 집중 은둔 수행 ‘무문관’이 1월 17일 3회차로 원만 회향했다. 지난해 11월 1차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정진에는 연인원 210명이 참여했다. 접수와 동시에 마감돼 대기 신청이 쇄도하면서 추가 개설까지 이뤄져, 집중 수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밀착 점검 구조 ‘호평’

무문관은 7일간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고 외부 접촉을 끊은 채 화두와 호흡에 전념하는 집중 수행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일과 대부분을 좌선과 정진에 몰입하며 매일 개별 수행 점검을 받는다. 이 1:1 밀착 지도 구조가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꼽힌다.

선원장 각산 스님은 정진 기간 내내 수행자의 상태를 점검하며 방향을 바로잡았다. 각산 스님은 “은둔은 세속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라며 “마음은 허공도 삼키는 무한한 힘을 지녔다. 처한 상황을 긍정으로 되돌려 쓰라. ‘이대로 족해. 다만 할 뿐’이라는 태도가 수행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홀로 정진하며 빠지기 쉬운 주관적 오류를 즉각 교정받을 수 있었다”며 “개인 명상 과외에 가까운 지도였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 전문직 참가자는 “매일 이어지는 점검은 나만을 위한 수행 설계와 같았다. 성취 중심 사고를 내려놓는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고, 청년 참가자는 “디지털 소음에서 벗어난 정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확신을 채우는 시간이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목소리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각양각층 ‘수행’으로 하나

참가자 구성 또한 눈길을 끌었다. 불교 수행자뿐 아니라 가톨릭 수도자, 목회자, 교수, 물리학자, 경영학자, 공무원, 요가 지도자 등 종교와 직업, 세대를 아우르는 이들이 함께했다. 서로 다른 신앙과 세계관을 지닌 이들이 동일한 수행 구조 안에서 7일을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문관은 특정 종교 교리를 설파하기보다 ‘각자의 내면에 대한 집중’을 목표로 한다. 교리 통합이나 종교적 설득 대신, 각자가 서 있는 전통 안에서 더 깊어지도록 돕는 방식이다. 한 가톨릭 수도자는 “무문관에서 체험한 우주는 시공을 넘어선 자유였다. 집착을 소멸하기까지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번아웃 사회 대안될까?

한국 사회는 우울감, 번아웃, 고립감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서적 피로는 개인 차원을 넘어 생산성 저하와 조직 갈등 비용,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치료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예방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문관 참가자들의 공통된 체험은 ‘불안 완화’, ‘집착 감소’, ‘자기 방향성 회복’으로 요약된다. 일정 기간의 집중 명상은 자기조절 능력과 감정 회복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상담·치료 비용 감소와 조직 내 갈등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명상마을 측은 “무문관은 불교 전통 수행을 토대로 하되, 정서 회복 구조를 갖춘 프로그램”이라며 “공공 영역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계화 · 매뉴얼화 특징

세계명상마을은 입문 과정인 ‘선칠수행’과 심화 과정인 ‘무문관’을 단계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표준화와 매뉴얼화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문관은 △자연환경 속 완전한 내면 몰입 △화두와 호흡 기반의 집중 수행 체계 △개별 밀착 점검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각산 스님은 “최고의 수행 환경과 깊이 있는 가르침이 만날 때 사람을 살리는 치유가 일어난다”며 “인생의 마지막 보루이자 버틸 힘이 되어주는 이 정진 프로그램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과잉과 감정 과부하의 시대, 명상은 바깥으로 향한 마음을 안으로 돌려 빛을 비추는 작업”이라며 “개인의 안정이 공동체의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연결이 아니라 더 깊은 고요함과 평온함을 찾고 있다. ‘문을 닫는 7일’이 개인 치유를 넘어 사회적 회복, 더 나아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류 문화가 노래와 드라마를 넘어 K명상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그 현장이 문경 세계명상마을에서 이어지고 있다.

문경세계명상마을 프로그램 참가자 소감기

치유와 회복: “공황장애와 번아웃을 넘어서”

수면무호흡 트라우마와 공황장애 증상으로 밀폐된 공간이 두려웠지만, 7일간의 수행을 완주하며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기 가 쏟아지는 강렬한 명상 체험을 했고, '백척간두진일보'의 마음으로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 노○○ (50대, 서울, 교수)

일본 절에서 행자 생활을 하다 번아웃이 와서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는 자'마저 사라지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고, 삶이 다시 아름답게 보이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 김○○ (30대, 서울, 수행자)

깨달음과 통찰: “호흡 끝에 찾은 빛과 자유”

호흡을 지켜보다가 마음이 투명해지며 '빛'이 떠오르는 체험을 했습니다. 선원장 스님의 지도로 호흡 수행에서 화두 수행으로 전환하며 '보는 행위'만 남는 깊은 경지를 맛보았습니다. - 비구니스님 (41세, 파주)

좁은 무문관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한 자유를 체험했습니다. 종교를 떠나 '옳다, 그르다'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심영애 데레사 (60대, 광주, 가톨릭 수녀)

삶의 변화: “매너리즘 탈출과 새로운 방향”

수행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 무문관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각산 스님의 문답 점검을 통해 방향이 분명해졌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 김○○ (40대, 부산, 직장인)

뉴스와 소음이 없는 적막 속에서 비로소 나를 만났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히려 호흡의 작은 빛을 보았고, 죽음조차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다는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 황○○ (60대, 경기, 주부)

초심자와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명상”

참선이 처음이라 걱정했지만 '고요함만 즐기면 된다'는 말씀에 압박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불교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인터뷰 덕분에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 이○○ (60대, 대전, 교직자)

불교도 명상도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책자를 읽고 그대로 행동해보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타인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 남○○ (30대, 용인, 중장비 기사)


각 캠프에는 청년들과 중장년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각산 스님으로부터 지도받는 청년들.


캠프에는 청년세대들이 대거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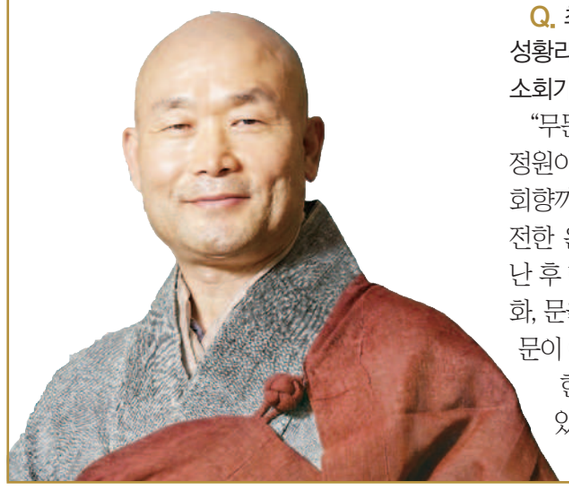

수행관에서 참석자들이 좌선하고 있다.


무문관 전경.

단독 인터뷰 선원장 **각산** 스님

각산 스님에게 듣는 ‘문경세계명상마을’ 수행 의미

최근 문경세계명상마을에서 진행된 집중수행 ‘무문관(無門關)’ 3차 캠프가 대중의 뜨거운 호응 속에 원만하게 회향했다. 종교와 직업, 세대를 불문하고 매 회차 정원 100명이 접수와 동시에 마감되며 일각에서는 ‘무문관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스스로를 5평 남짓한 독방에 가두는 이 혹독한 수행에 현대인들, 특히 2030 MZ세대 청년들까지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경세계명상마을 초대 선원장 각산 스님을 만나, 이번 캠프의 성과와 명상이 현대 사회에 던지는 치유의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Q. 최근 3차례에 걸친 무문관 수행 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회향 소회가 어떠신지요?

“무문관 캠프를 진행하면서 매회 100명의 정원이 공지와 동시에 마감되었습니다. 3차 회향까지 210명이 넘는 대중이 7일간의 완전한 은둔 수행에 동참했습니다. 캠프가 끝난 후 한 참가자가 남긴 ‘인생을 뒤흔드는 변화, 문을 닫았을 뿐인데 삶이 열렸다’는 소감 문이 아직도 뇌리에 깊게 남아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도파민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울리는 스마트폰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바라볼 시간은 잃어버렸죠. 이번 무문관 캠프는 참가자들이 본래의 면목을 되찾는 경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Q. 과거 전통적인 무문관은 ‘폐관 정진’이라 불릴 만큼 가혹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경세계명상마을 무문관만의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고 완전히 밀폐된 전통적 방식의 무문관도 훌륭한 수행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명상마을의 무문관은 현대인들의 정서적 회복에 초점을 맞춘 ‘마당이 있는 무문관’입니다. 세속과의 단절이라는 무문관의 본질은 철저히 유지하되, 꽉 막힌 공간이 주는 폐소공포나 압박감을 줄여 초심자도 선정(禪定)에 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수행법의 통합에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인 간화선(화두참구)의 법맥과 부처님의 정통 초기불교 수행법인 안반선(아나빠나 사띠·호흡명상)을 접목했습니다. 호흡명상으로 내면을 관찰하여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이후 화두를 들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안내합니다. 수행 기간 내내 1:1 ‘핀셋 지도’를 통해 참가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밀착 점검한 것도 큰 호응을 얻은 비결입니다.”

Q. 특히 지난 1월에는 ‘MZ청년명상캠프’로 진행되어 젊은 층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 12일부터 6박 7일간 열린 캠프에는 취업 준비와 무한 경쟁에 지친 수많은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청년들은 늘 사회적 성취와 외부의 평가로 자신을 증명해 내야만 하는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5평 독방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금단현상처럼 끊임없는 불안과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며칠의 침묵 속에서 나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결국 ‘아, 내가 굳이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하구나’라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법을 체득하고 돌아가는 청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숙식 무료 등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운영 방식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경세계명상마을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명상은 특권층이나 출가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문관 캠프는 참가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7만 원의 기본 접수비를 제외한 모든 숙식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오직 보시(기부)만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선원수좌회 장로의원이신 의정 스님을 비롯한 많은 장로수좌 스님들과 후원자들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문경세계명상마을은 종교와 이념, 직업을 초월하여 누구나 찾아와 쉴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명상 힐링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팍팍한 삶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언제든 이곳 산문을 넘어와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노덕현 기자

우리를 가둔 것은 스스로의 말이었다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① 공염불과 도로아미타불: 실패의 은유가 돼 버린 수행의 언어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해 온 '공염불'과 '도로아미타불' 같은 표현은 불교 용어의 치열한 정진 과정을 지운 채 실패만 남기는 등 변질돼 왔다. 이 같은 낡은 언어를 살피고, 실패의 상징으로 굳어 버린 말들을 다시 생생한 지혜의 현장으로 되돌려야 한다. **사진 출처=Gemini 생성 이미지**

'공염불이 된 공약', '십 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들이다. 정치인의 빈말에는 '공염불'이라는 딱지가 붙고, 공든 탑이 무너진 상황엔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추임새가 늘 따라다닌다. 이 단어들 속에는 '헛수고', '빈말', '실패'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꽉 들어차 있어서,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도 상황이 단번에 정리된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이 불러오는 세계는 꽤 묘하다. '염불'과 '아미타불'이 불교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수행이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염불은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는 치열한 훈련이고, 아미타불은 괴로움 없는 세계인 극락으로 이끌어 주는 구원의 상징이다. 한마디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노력이고,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간곡함을 담고 있는 숭고한 표현들이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어쩌다가 '도로'와 같은 허탈한 단어들과 어울려 다니며 '헛짓'의 대명사가 돼 버린 걸까?

'비어 있음'의 지혜, 어떻게 '실패의 낙인' 됐나

이 말이 이렇게 굳어진 데에는 '공(空)'을 잘못 읽어 온 대중의 오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우리는 '공'이라 하면 자꾸 '알맹이 없는 허탈함'이나 '실속 없는 무용함' 같은 느낌을 먼저 떠올린다. 마치 과자 봉지에 공기만 찬 느낌, 속 빈 공갈빵 같은 이미지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나'라는 틀에서 벗어난 걸림 없는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공+염불'을 글자 그대로 풀면 '나를 지운, 대가 없는 최상의 염불'을 뜻해야 하지만, 일상에서는 대개 '입만 움직이는 헛된 염불'로 변질됐다. 즉, 불교의 깊은 의미가 일상어가 되면서 '노력해 봤자 결국 남는 게 없다'는 식의 허무한 결론으로 뒤틀린 것이다.

이러한 뒤틀림은 '도로아미타불' 설화에서 더 극적으로 표현된다. 설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한 스님이 십 년 동안 정진한다. 세속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신의 눈빛과 호흡 하나까지 단속하면서 그 십 년의 공력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스님의 앞에 유혹이 하나의 '사건'처럼 등장한다. 물에 빠진 여인의 비명이거나, 마음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몸짓 같은 것들이다. 스님은 직감한다. 지금이 마지막 고비임을. 그러나 머리가 '안 된다'고 경계하는 사이, 몸은 이미 본능을 향해 기운다. 손을 뻗는 찰나, 팽팽하게 당겨졌던 수행의 끈은 허망하게 끊어진다. 그 순간 스님은 망연한 얼굴로 중얼거린다. "아미타불이 도로 아미타불이 됐구나!" 마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린 탑이 마지막 돌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십 년 공부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스토리로 세상에 전한다.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옛이야기였을지 모르나, 사실 여기에는 매우 냉혹한 시선이 숨어 있다. 십 년을 공들였는데도, 마지막 한 번 잠시 흔들렸다고 모든 게 '0점'이 된다니. 그동안 쌓인 마음의 힘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 이야기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관용구가 돼 버리는 순간, 수행은 '과정'이 아니라 '한 방, 도박'이 된다. 흔들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한 번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시험이 돼 버린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본래 가르침은 결코 결과만 보고 사람을 재지 않는다. 〈법구경〉처럼 "낙숫물이 고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는 작은 노력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가르친다. 설령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을지언정, 그가 십 년 동안 굴린 염주 알의 매끄러움과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올린 기도의 정성은 사라지지 않고 수행자의 삶 속에 남는다. 실수 한 번에 오랜 과정 전체를 지워 버리는 이 매정한 수식어는, 어쩌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 붙인 속세의 심술궂은 꼬리표처럼 보이기도 한다.

숭고한 표현이 '헛짓'의 대명사 전락
대중 오해로 잘못 읽힌 결과 굳어져
불교 밀어내려 한 '언어의 정치' 작동
다른 종교에 없는 조롱 관용구 남아
체념 대신 왜곡된 표현 다시 살펴야

조선이 불교를 '웃음거리'로 만든 방식

이런 오해나 비정한 서사가 대중의 일상에 쉽게 스며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불교를 역사의 주류에서 밀어내고자 했던 '언어의 정치'가 움직이고 있었다. 조선 시대 유교 지배층은 불교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반박하기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선택했다. 바로 '조롱'이다. 비판은 상대를 마주 보게 하지만, 조롱은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게 만든다. 논리로 싸우면 반박할 기회라도 생기지만, 한 번 웃음이 붙으면, 그 대상은 진지한 대화 자리에서 금방 밀려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들만 봐도 그렇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염불에는 마음 없고 잿밥에만 마음 있다'와 같은 속담이 그것이다. 당시 양반들 역시 제 손으로 못 하는 일이 허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승려의 결연함의 상징인 '삭발'을 가져와 '무능'과 '한계'의 대명사로 삼는다. 신성한 종교적 계율을 타인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딱한 처지로 바꿔치기해 버린 시선 속에는 당대 지배층의 은근한 비아냥과 조롱이 숨어 있다.

'잿밥' 역시 부처님께 올리는 귀한 정성이었으나 어느새 탐욕의 대명사가 돼 있었고, '염불'은 '입으로만 하는 쇼'가 돼 버렸다. 당대의 유학자, 관리, 도인, 선비는 놔두고 유독 불교 승려를 불러와 "저들은 원래 그렇다"는 듯한 공식으로 찍어 버리니, 불교 전체가 한 번에 '무능하거나 위선적인 집단'처럼 보일 수밖에.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봐봐, 한심하지?"라며 낄낄거리는 방식은 대중들에게 지배층의 편견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했다. 조선의 지배 권력은 불교를 비웃음의 영역에 가둠으로써, 불교가 가진 귀중한 사유와 가르침이 대중에게 닿는 길을 교묘하게 끊어 놓았다.

말은 밖보다 안에서 굳는다

이런 조롱의 방식이 얼마나 편파적인지는 다른 종교와 대비해 볼 때 더욱 선명해진다. 누군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헛렐루야'나 '도로아멘'이라고 하지 않는다. 혹자는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짧아 관용구로 굳어질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겠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언어가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다. 다른 종교에서는 대개 실패나 흔들림을 개인의 부족함으로 설명하지만, 유독 불교만은 '수행이라는 행위 전체'를 싸잡아 쓸모없는 중얼거림으로 몰아세운다. 지배 권력이 심어 둔 "결국 불교는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비웃음을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 대대손손 물려준 셈이다.

더 뼈아픈 지점은 이 표현들이 불교 내부에서 더 자주 쓰인다는 사실이다. 불자들조차 일상에서 "또 공염불이네", "에휴, 도로아미타불이지, 뭐"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쓴다. 불교 방송이나 신문, 법문 속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형식적인 수행을 경계하고 실천 없는 태도를 따끔하게 비판하기 위한 좋은 의도였을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 남는 건 결국 하나다. 불교 수행은 점점 '해봐야 소용없는 일'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지금껏 우리는 불교를 어떻게 말해 왔을까

이쯤에서 다시 묻게 된다. 불교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말 속에서 불교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 왔는지, 성불과 수행을 허망함이나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체념으로 내뱉지 않았는지 말이다. 물론 불교는 수행의 길이 쉽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것을 "힘들지만 갈 수 있다" 말하는 것과 관용어를 통해 '헛짓거리'로 치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한 '공염불'과 '도로아미타불' 같은 표현은 치열한 정진의 과정을 지워 버리고 결과 없는 실패만 남긴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생각이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설계도다. 염불과 수행을 실패의 마침표로 찍는 언어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수행의 서사가 설 자리는 없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지배 권력이 설계한 '조롱의 문법' 안에서 불교를 이해해 왔다. 이제 불교를 새롭게 하기 전에 우리를 지배해 온 낡은 언어부터 살피고, 실패의 상징으로 굳어 버린 말들을 다시 생생한 지혜의 현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뜻풀이를 넘어 '마음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다. 우리를 가둔 것이 스스로의 말이었다는 자각, 그 지점에서 불교의 진짜 풍경은 시작된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3월27일 출발~3월31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6월04일 출발~6월1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5월 27일 출발~6월 2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6월18일 출발~6월22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이탈리아 돌로미테 여행 9일
26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돌로미테 코르티나담페초와
오르티세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7월 초는 야생화가 만발한 최고의 힐링코스입니다.
출발일 : 7월02일~7월10일 출발확정
▶ 동참금 : 800만원

우즈베키스탄 불교성지 순례 7일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와
테르미즈의 불교사원 등 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6월12일(5박7일)
▶ 동참금 : 30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새해 악귀 물리치고 온갖 기쁜 소식 전하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④ 양산 통도사 해장보각 · 명부전의 호작도


양산 통도사 명부전 호작도.


양산 통도사 해장보각 호작도.

세화 문배도, 데몬 헌터스의 원형

새해 설날의 세시풍속 중 하나가 그림을 선물하거나 대문에 붙이는 것이다. 정월 초하루에 왕이 신하에게 내린 그림을 '세화(歲畫)'라 불렀다. '새해 그림'의 의미일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5년(1510년) 9월 29일의 기록은 궁중에 세화 풍습을 엿보게 한다. "세시 전에 화사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재상에게 우열을 매기게 하여 좋은 것은 궁궐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상과 가까운 신하들에게 하사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은 그를 증명한다.

특히 정조 대에 이르러 문치와 학문 숭상의 고취를 위해 도화서의 차비대령화원들에게 '책가도(책거리)'를 그리게 명하고, 그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귀양까지 보내는 중징계를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왕이 신하에게 선물한 세화는 도화서 화원들이 그린 작품이었다. 조선 후기 궁중 조례집인 〈육전조례〉의 '진상조'에는 세화는 자비대령화원이 각 30장, 도화서 화원이 각 20장을 12월 20일까지 제작해 올리고, 각 전각이나 문에 붙일 문배는 화원들이 12월 그믐날까지 진상해야 하는 규정까지 밝혀 두고 있다. 세화는 조선 궁중의 공식 세시풍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궁중 중심의 세화 풍습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민간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다양한 소재로 재해석됐다. 세화의 대부분은 십장생도나, 신장도, 모란, 신선도, 수성노인도 등이었다. 그림 속에 장수와 복, 벽사, 학문 숭상, 안녕의 수복강녕 염원을 담아 유통시켰다. 세화는 한국 회화사에서 조선 후기 민화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었다. 두루마리 그림이나 병풍 형식뿐만이 아니라 벽화로도 재치 있게 재해석되고 다양한 성격의 건축 형식에 폭넓게 수용됐다.

궁중 세화의 민간 차원으로의 확대를 견인한 그림은 문배도였다. 문배도는 대문 양쪽에 그린 그림으로 부적 성격이 강했다. 특히 '세화축역(歲畫逐疫)'이라 하여 역병과 같은 액, 재앙을 막는 벽사 성격으로 인해 민가에 유행처럼 번졌다. 오늘날 말로 문배도는 '데몬 헌터스'였다.

문배도에 그린 대표적인 소재가 두 신장상, 용, 호랑이 등이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도상은 용과 호랑이를 대칭적으로 그린 용호문배도다. 두 장군상, 혹은 신장상 형식의 문배도는 매년 종이에 그려 바꿔 부착하는 세화 특성상 남아 있기가 어렵다. 고택에선 안동 하회마을 북촌댁 대문채에 극히 희귀하게 두 장군상 문배를 표구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사찰 중문에서도 벽화 형식의 두 신장상 문배를 드물게 볼 수 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의 중문 좌우 문에 현존한다. 사찰 중문의 문배는 호법신중인 금강역사의 성격이 강하다.

가장 대중적으로 확산한 형식은 대문 좌우에 각각 용과 호랑이를 그린 용호문배도였다. 그림 형식도 있고, 큰 서체로 쓴 문자 문배도도 있다. 민가 고택에서는 문자첩 형식으로 유통됐다. '용(龍)'과 '호(虎)' 한 자씩 큰 글씨로 정사각형 종이에 써서 입춘첩처럼 대문 양쪽에 붙였다. 그림 형식의 용호문배도는 민가의 효자각, 열부각, 고택의 사당 등 특별한 위계 건축에 집중적으로 그렸고, 전통사찰에서도 산신각이나 명부전, 응진전 등의 좌우 벽에 그려 넣는 경향이 뚜렷했다. 용호문배도 그림 배치에서 좌청룡 우백호의 원리는 엄격히 지켜졌다. 문이나 건축을 앞에서 바라볼 때 향우측-동-청룡, 향좌측-서-백호의 원리를 구현했다. 전통사찰에서는 양산 통도사 명부전, 순천 선암사 장경각, 남양주 봉선사 북두각 등에서 그러한 음양오행에 근거한 조형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통도사에 현존하는 네 점의 호작도

현존하는 사찰벽화 중에서 호랑이를 중심 소재로 한 벽화는 20여 점에 이른다. 그중 주목되는 곳은 양산 통도사다. 호랑이 벽화가 무려 4점이나 분포한다. 그것도 한국 산사의 현존하는 호랑이 벽화 중의 정수로 손꼽는 명작들이다. '백호도(白虎圖)' 벽화 한 점과 '호작도(虎鵲圖)' 벽화 세 점이 그것이다. 호작도는 말 그대로 호랑이(호)와 까치(작) 그림이다. 우리말로 '까치호랑이 그림'으로 부른다.

현재 전통사찰에 현존하는 호작도는 일곱 점으로 파악된다. 그중 세 점이 통도사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호작도 벽화의 희귀성에 비춰 볼 때 경이로운 밀집도가 아닐 수 없다. 나머지 네 점은 순천 선암사 장경각,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하동 쌍계사 대웅전, 김천 청암사 보광전 등에 전한다. 통도사 호랑이 벽화 네 점의 위치와 형식,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해장보각 향우측 외벽 – 호작도(적호) – 71㎝×236㎝
2) 명부전 향좌측 내벽 – 호작도(백호) – 83㎝×198㎝
3) 용화전 향우측 외벽 – 호작도(적호) – 129㎝×156㎝
4) 응진전 향우측 내벽 – 백호도 – 135㎝×266㎝

호작도는 벽사 · 길상의 까치호랑이 벽화
현존하는 호랑이 소재 사찰벽화 20여 점
통도사에 백호도 1점, 호작도 3점 현존
해장보각 · 명부전 호작도는 사찰벽화 명작

네 벽화 중 응진전의 백호도가 가장 크다. 백호는 벽사(辟邪) 영물로 신성하게 여긴다. 백호는 동서남북 네 방위 수호신인 사신 중의 한 영물로서 서쪽 수호신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서 청룡, 주작, 현무 등 다른 사신이 관념적·초현실주의적이라면 백호는 자연에 실재하는 호랑이를 추상화해 영물시한 특별한 신수다.

응진전 백호도, 위신력 갖춘 명작

응진전의 한 칸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백호도는 크기, 붓질 묘사력 등에서 압도적이다. 한국의 호랑이는 두 종류로 알려진다. 줄무늬 호랑이가 있고, 점박이 표범형 호랑이도 있다.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비로전)의 관세음보살-달마도 벽화 속에, 또 합천 해인사 명부전의 호렵도 속에 두 종류 호랑이가 동시에 표현돼 있다. 통도사 벽화 속 호랑이는 모두 줄무늬 호랑이다.

응진전 백호도는 커다랗게 찍어 나간 태점으로 등뼈 골간을 꼬리 끝까지 점점이 이어 나간 후 굵고 짧은 세로획을 일정 간격으로 빠르고도 힘 있게 단숨에 쭉쭉 내려 몸통을 완성했다. 그림 속에서 붓의 머뭇거림을 찾기 어렵다. 거침없는 속도감과 윤곽선이 없는 몰골법의 힘이 동시에 느껴진다.

네 발은 사다리꼴로 안정적이며 독보적으로 위풍당당하다. 딛고 서 있는 땅엔 발톱으로 할퀸 흔적이 뚜렷하다. 자기 영역을 표시한 호랑이 습성을 드러내고 있다. 눈동자는 마름모꼴로 독특하다. 강한 시선으로 한 곳을 지켜보고 있다. 점 하나, 획 하나마다 불전 수호신의 위신력을 담아낸 명작 백호도다.

호작도의 의미는 '신년보희(新年報喜)'로 압축된다. 새해 기쁜 소식을 알린다는 의미다. 통도사 호작도의 중심 소재는 셋이다. 호랑이, 까치, 소나무. 호작도의 구성과 상징을 간단히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호랑이-사악한 기운 물리침(벽사)
까치-기쁜 소식을 전함
소나무-장수의 상징

호랑이는 새해 벽사로서 사악함을 막고, 까치는 길조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다. 사철 푸르른 소나무는 건강과 장수의 뜻을 담았다.

해장보각 호작도, 최고 명작 호작도 벽화

통도사 명부전은 불교 속 민화의 보고로 평가된다. 호작도, 화조도, 수궁도, 삼국지 속 삼고초려도 등 민화 성격의 도상이 풍부하다. 호작도는 명부전 벽화 장엄의 민화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벽화로 표현한 호작도는 드물다. 한 사찰에 세 점의 호작도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세 점 모두 구성과 소재 측면에서 통일적인 형식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다만 용화전 호작도의 경우 채색 안료가 곳곳에서 떨어져 나가 벽화의 원형을 파악하기 어려워 안타깝다. 하지만 명부전과 해장보각의 호작도는 보존성은 물론이고 희소성과 예술적 완성도까지 갖춰 사찰벽화의 명작으로 손꼽는 데 손색이 없다. 두 호작도는 여러모로 대비된다.

1) 명부전 호작도: 백호. 내부 향좌측 벽화. 내부 향우측의 청룡도와 대응. 꼬인 소나무 두 그루와 바위산이 배경. 비탈 산길을 범 내려오는 형상.

2) 해장보각 호작도: 적호. 외부 향우측 벽화. 외부 맞은편 용화전의 청룡도와 대응, 적송 한 그루와 풀이 돋아 있는 평지 배경. 점프하려는 듯 뒷발에 힘을 집중하고 몸을 웅크린 형상.

무엇보다 두 호작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명부전 내부의 호작도는 다소 정적이고 정지된 느낌이다. 그에 비해 해장보각 외부의 호작도는 동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사찰벽화 호작도로 하나만 꼽으라면 해장보각 호작도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해장보각 호작도에는 까치호랑이 그림의 낭만성도 있고, 역동적이며 극적 긴장감도 살아 있다. 민화가 가진 특유의 해학성이나 자유분방함, 왜곡된 신체 비례, 어리숙하게 과장한 표정 등도 극적이다. 장난기가 화면 전체에 흐르지만 곳곳에 긴장 구조를 살려 내는 주도면밀함도 갖추고 있다. 예컨대 포복하여 다가가듯 몸을 바짝 낮춘 자세라든가 뒷발에 실어 둔 강한 탄성력 등이 그런 모멘트다. 장난기 너머에 예리한 시추에이션을 장치했고, 해학성 너머에 긴장 구조를 갖춤으로써 예(禮)와 악(樂)의 조화로움을 구현하고 있다. 예가 지나치면 경직돼 인심을 잃을 것이고, 악이 지나치면 무질서의 장난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해장보각의 호작도에 예와 악이 조화롭다. 명작 벽화의 품격을 두루 갖췄다. 몸을 바짝 낮추고 꼬리 끝을 힘줘서 감았다. 통도사 해장보각 사찰벽화 속에 K-컬처의 데몬 헌터스가 어흥거리고, 까치는 국태민안을 전한다. 범 내려온다. 꼬리를 세우고 범이 내려온다.



노재학 작가

대한불교관음종 탈종관련 입장문

1.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히 나투어 귀 종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성사는 법성스님(정태선)이 창건하신 유서깊은 사설사암으로서 종무행정 편의상 1989. 11. 5. 창건주께서 귀 대한불교관음종에 사원으로 등록하신 적이 있었으나, 사찰의 주지는 창건주께서 그대로 면면부절 하다가 2004년 5월경 창건주에 의해 법명스님(황우종)이 주지를 계승하여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도록 하시어 법명스님이 지금까지 주지직을 잘 수행해 오셨으며 귀 관음종에서도 이를 인정해 왔다.

3. 이후 법성사에 대하여 창건주 법성보살님의 유지와 불자들의 귀의처로서 자리매김 하기위해 2013. 8. 27. 법성사의 모든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 법성재단을 설립하여 경남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이후로는 재단법인이 법적으로 법성사의 모든 관리 운영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단법인 설립은 당시 주지인 법명스님(황우종)도 적극적으로 수희동참 하시고 추진하시어 설립된 것이고 귀 종단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10여년 이상 아무런 이의없어 사실상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성사의 주지임명이나 기타 재산 등 관리운영은 오로지 재단의 정관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이 결정하도록 되었고 그 이후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평온히 운영되어 왔으며 귀 종단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특별한 간섭이 없었다.

4. 그런데 근자 귀 종단에서 느닷없이 우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요구하였고 재단에서는 재단법인과는 이무런 연관성이 없는 귀 종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주지해임 운운하고 동시에 재단법인이나 창건주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오인석이라는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겠다고 일방적 통지를 보냈는 바, 이는 창건주에 의한 주지계승도 아니고 재단법인의 정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다.

5. 2013년도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성사의 주지임명이나 관리운영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면서 과거 귀 종단에 법성사를 산하 사원으로 등록된 것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그 당시 법성사의 대표자인 주지 법명스님도 이에 찬성하신 것으로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다시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25. 10. 14. 법성재단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법성사를 귀 종단에서 탈퇴하는 결의를 하였고 주지 법명스님도 이에 찬성하시어 이로써 탈종은 확고히 처리된 것이다.

6. 우리 법성사는 그 동안 귀 종단에 수십억원의 삼보정재를 증여 했지만 귀 종단은 법성사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하나도 한 것 없이 우리 재단 내지 법성사의 재산만 탐하고 불교정신의 구현에는 무관심하므로 법성사의 발전을 위하여 탈종한 것이므로, 추후로는 귀 종단에서 법성재단 내지 법성사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업무방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귀 종단에서 부당한 이득 등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적 간섭을 하려 한다면 부득이 업무방해, 주거침입, 공갈협박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그 동안 귀 종단이 법성사로부터 증여받은 수십억원의 돈도 증여를 해제하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것이다.
향후 재단법인 법성재단은 새로운 희망을 위해 재단임원 중심으로 사부대중은 더욱 결집하여 법성재단을 정상화 하고 무량한 등불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다함께 정진할 것을 부처님 전에 천명한는 바이다.

불기 2570(2026)년 2월 10일

재단법인 법성재단 이사장 법련 외 사부대중 일동

엄마를 기다리는 시인

시, 불교를 만나다

㉗ 여래(如來) : 기형도의 '엄마 걱정'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엄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크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지만, 안 계시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도 없어지고 주눅이 든다. 왜 아니 그렇겠는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이를 24시간 돌보고 키워냈으니 말이다. 최소한 3년 정도는 엄마의 손길이 닿아야 사람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삼년상을 지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엄마는 아이를 받들고 있는 든든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분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편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엄마가 없다는 것을 콤플렉스로 여겨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다녔다. 다행히 집이 꽤 멀리 떨어져 있고 같은 동네에 사는 학교 친구가 없어 대부분 이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없다는 비밀을 알게 된 친구가 "너 엄마 없지?"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그 친구와 주먹다짐하며 싸우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아무리 좋은 성적표를 받아 와도 "너 엄마 없지?"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절이었다. 엄마란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란 시를 읽으면서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장에 간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시다.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자, 아이는 방 안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고 있다. 마침, 밖에는 처량하게 비까지 내린다. 시인에게는 늦게라도 돌아올 엄마가 있었지만, 내겐 그런 엄마가 없었다.

기형도 시인을 떠올리면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다. 알려진 것처럼, 좋은 시재를 타고났지만 제대로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이른 나이에 요절했기 때문이다. 시인은 대학 시절 한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1982년 대학문학상인 윤동주 문학상 시 부문에 '식목제'라는 작품이 당선된다. 중앙일보 기자로 활동하던 1985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안개'란 시가 당선돼 등단하게 된다.

하지만 1989년 3월 어느 날 새벽 그는 종로의 한 허름한 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만 29세 생일을 엿새 앞둔 날이다. 사인은 뇌졸중이다. 시인의 아버지 역시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인지 기형도는 평소에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비관적인 생각을 했었다고 전한다. 불행하게도 생각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라는 유행가 가사가 떠오른다.

시인이 세상을 떠난 후 나온 유고 시집이 바로 그 유명한 〈입 속의 검은 잎〉이다. 책 제목과 같은 '입 속의 검은 잎'을 비롯해 '질투는 나의 힘', '소리의 뼈' 등의 작품이 실린 시집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엄마 걱정' 또한 맨 마지막 장에 실려 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시집의 소개말이다.

"기형도는 일상 속에 내재하는 폭압과 공포의 심리 구조를 추억의 형식을 통해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의 시 세계는 우울한 유년 시절과 부조리한 체험의 기억들을 기이하면서도 따뜻하며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시공간 속에 펼쳐 보인다."

기형도의 시 안에 담긴 정서를 잘 표현한 것 같아 인용해 보았다. 〈입 속의 검은 잎〉 외에도 〈짧은 여행의 기록〉,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기형도 전집〉 등의 작품이 나와 그를 기억하는 독자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엄마 걱정'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 열무를 팔기 위해 시장에 나간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던 일을 회상하며 쓴 작품이다. 읽기만 해도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차가운 '윗목'으로 시를 마친 아이 기형도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작품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읽어 본다.

〈입 속의 검은 잎〉 유작 '요절 시인'의
엄마 기다리던 '유년의 윗목' 표현한 시
부처님 기다리는 불자 자세 생각하게 해

"열무 삼십 단을 이고 / 시장에 간 우리 엄마 /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 아주 먼 옛날 /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여래, 엄마로 오신 부처님

이 시를 읽으면서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본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오게 될 엄마를 시인은 왜 그리도 애타게 기다린 것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적이다. 자기 삶의 전부라는 뜻이다. 불교 영화 '대가족'에서 한 스님이 제자에게 말한 대사는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아이에게 부모란 우주다. 부모에게 아이란 신이다.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신. 부모는 그 신을 간절히 섬기지. 너도 부모님께 그 섬김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처럼 부모란 아이에게 온 우주,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다. 반면 부모에게 아이는 신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아이를 돌보지 않고 가만 놔두면 잠시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다.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는 아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모시면서 키워 낸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부모의 섬김을 받고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것이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이들이 깊이 공감하는 대목이다.

불교는 사은(四恩), 즉 이 세상에서 받은 네 가지 은혜라 해서 중생은(衆生恩), 스승은[師恩], 국토은(國土恩)과 더불어 부모은(父母恩)을 중시하고 있다.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 수 있는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이라는 경전도 있다. 주로 우란분재(盂蘭盆齋)가 다가오면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다. 우란분재는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불교의 중요한 명절이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음력 7월 15일 참회 의식인 자자(自恣)를 마친 청정한 스님들에게 음식과 과일, 향촉과 의복 등을 공양 올린 데서 유래한다. 오늘에도 이날이 되면 전국의 사찰에서 우란분재 기도를 봉행하고 효의 의미를 새기고 있다.

기형도의 '엄마 걱정'을 다시 읽으면서 문득 부처님이 떠올랐다. 시 속에 등장한 엄마의 모습에서 묘하게 부처님이 연상된 것이다. 부처님을 가리키는 여러 호칭 가운데 '여래(如來)'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여래여거(如來如去)'의 준말인데, 진리의 세계로 가셨다가[如去] 다시 중생들이 사는 이 땅에 오셨다[如來]는 뜻이다. 왜 다시 오신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고통 속에 빠진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탄생게(誕生偈)로 알려진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三界皆苦 我當安之)"는 선언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불교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시인의 엄마는 시장으로 갔지만, 부처님은 진리의 세계로 갔다. 아무리 늦더라도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부처님 또한 중생들이 사는 이곳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엄마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처럼, 부처님 또한 중생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믿음이 여래라는 이름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부처님을 기다리며 불자들은 오늘도 절을 한다. BTN 불교TV에서 매일 방영하고 있는 108대참회문 107번째에 있는 내용이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이처럼 불자들은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미륵 신앙에도 이러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56억7천만 년이 지난 후에 미륵불이 오셔서 세 번에 걸쳐 모든 중생을 구원한다는 믿음이다. 이를 미륵 하생신앙(下生信仰)이라 하는데, 미륵불이 계시는 도솔천에 낳기를 바라는 상생신앙(上生信仰)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미륵 신앙은 엄마를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과 많이 닮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을 기다려야 할까? 시인은 엄마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숙제를 마쳤다. 집에 돌아온 엄마가 힘들까 봐 방 청소도 깨끗이 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도 부처님이 진리의 세계로 떠나면서 남긴 유훈, 즉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을 숙제 삼아 열심히 수행하고 이 땅을 청정하게 가꾸면서 기다려야 한다. 엄마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말이다.

그럼에도 기형도는 해는 이미 지고 자신은 마치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고 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시인은 혹여 엄마가 안 오시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면서 빈방에 엎드려 홀로 울고 있다. 부처님을 기다리는 중생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보현보살의 열 가지 서원을 담고 있는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에 '청불주세(請佛住世)', 즉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말씀 잘 듣는 아이처럼, 우리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들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불자의 삶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목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대행 스님

오직 주처를 안으로, 내면에다 두라

지난 호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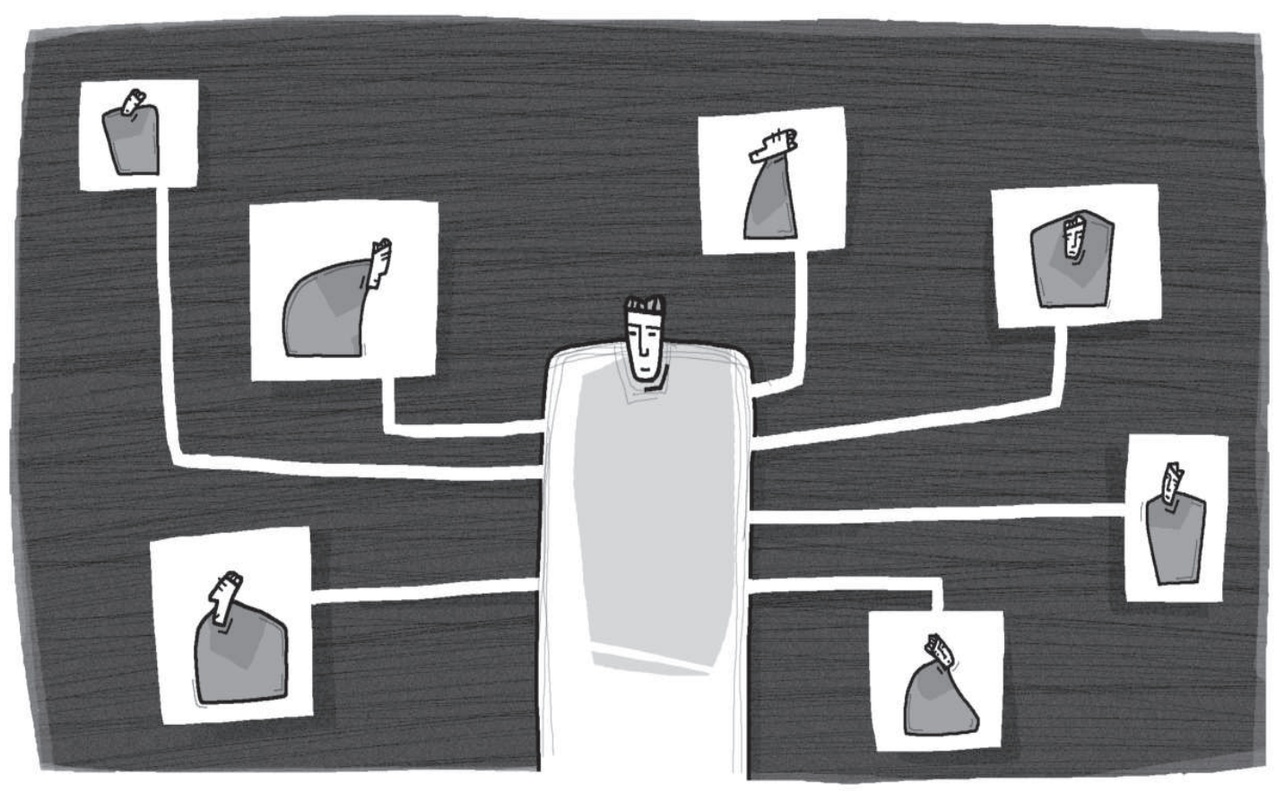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가 안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있으니까 바로 자기 법신이 있는 것이요, 부처가 있는 것이요, 또 화신이 있는 것이지 도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寺)만이 도량이고 가톨릭교나 기독교의 강당만이 강당이 아닙니다. 자기가 변소에 앉아 있으면 바로 자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변소 또한 도량입니다.

이 세계, 삼천대천세계의 일체를 잘 요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으뜸가는 자유인이요 부처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유의 세계 무의 세계, 죽은 사람 산 사람, 죽은 영들 산 영들을 다 한꺼번에 건질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구경경지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각을 이루고 말입니다.

"망상을 끊어라, 끊어라" 하는데 끊는 것이 아닙니다. 저 물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걸 아무리 끊은들 끊어지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자유인이 되는, 바로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망상이 없다면 사람 될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석일 것입니다. 그러니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망상은 망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길잡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편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대 성인의 가르침을 그렇게 헛되이 생각해서 우리 인간의 도리를 다 못 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을 믿는 사람도 형상만 보고 거기다가 나를 잘되게 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기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고상을 걸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상이 나의 형상하고 둘이 아니요, 그 마음이 나하고 둘이 아니요, 그 생명이 나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어디 가서 앉았든지 끊어짐이 없습니다. 믿어도 바로 믿고, 생각을 해도 바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도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못 믿고 남을 원망하고 만날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이렇게 해서야 어찌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며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항상 다스려 나가면서 남편한테나 자식한테나 또는 형제간에나 친구간에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망했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세요. 만약에 내가 없다면 그 상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탓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기 주처에,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준다면 아마 자식과 남편이 이탈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도 할 것이 없고요.

우리 이 몸뚱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뜬구름과 같이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는 것이 바로 이 몸뚱이입니다.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의 집입니다. 집이고 종입니다. 불가에서는 시자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 개별적인 마음이 아니라 몸속에 들어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마음들이 한데 합쳐서 한 그릇으로서 한마음으로서 돌아가게끔 할 수 있어야 이 종을 잘 부릴 수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이끌어 가고 또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라야만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자기 가정을 잘 이끌어 줍니다. 이 주처의 주인공은 둘이 아닙니다. 전등은 이렇게 모두 따로 있지만 전력은 똑같듯이 둘이 아닙니다. 모습은 각각일지언정 어떻게 전력이 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동서가 둘이 아니요, 또는 아미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아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지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관세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하고 그치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죠. 또 어린애로 태어났을 때 지어 준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두 개네요. 남편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사위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형이라는 이름이 또 있고 아우라는 이름이 또 있고…. 여러분, 어머니든 아버지든 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고 부처라면 이렇게 서서 자기 이름을 떡하니 붙여 놓고는 거기다 기도하는 걸 볼 때에 마음이 좋겠습니까? 네? 자기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쭈욱 붙여 놓고선 거기다 놓고 빌고, 거기다 놓고 '주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빈다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 본인이 볼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런 멍청이들 같으니….'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말하면, 우린 자동적입니다. "여보!" 하고 부르면서 들어오면 말과 행과 뜻이 똑같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면서 들어오니까, 금방 남편이 됐었는데 고만 아버지가 돼 버리죠. 어때요? 틀립니까?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얘, 아무개야! 이리로 좀 건너오너라." 이러면 금방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바깥에서 "형님!" 하고 들어오니까 금방 형이 된 거죠. 이건 자동적으로 행과 말과 뜻이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컴퓨터보다 얼마나 더 빠릅니까. 어때요?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꺼내 쓰는 것보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마음을 깨치고 마음의 병을 고쳐 주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마음의 병만 고친다면 모든 육신의 병은 다 떨어질 것이니까요. 핵심을 떠나서 육신, 이론, 지식, 학식, 교양 이런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걸 포함해야 되겠죠.

우리네 이름들이 많듯이 부처님의 마음도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동방에는 아촉이라는 이름을 지어 놓으시고 서방에는 아미타를 해 놓으시고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을 해 놓으시고 지천국에는 지장을 해 놓으셨어요. 자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왜, 여러분도 한 가정에서 살면서 이름이 그렇게 많지만 모두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무개!" 그러면 빨리 올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사는 도리이기 때문에 방편상 그 이름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미륵이다' 이러는 것은 사람이 죽었으면 잠시 잠깐 없어졌다가 또다시 이 세상에 출현이 되는 것을, 찰나에 돌아오는 것을 미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부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법신이고 화신이에요. 그 이

☞ 20면으로 계속



삶은 苦고가 아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체제불과 우리 육의 조상의 마음이 둘이 아니다

☞ 19면에서 계속

유는 하나님은 내 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내 님이라고 하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체, 한 그릇 할 때 한 그릇이듯이 하나로 이 세상 천체가 돌아간다 해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말입니다. 나는 불교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불교 아닌 사람이 없는데, 불교로 오라 가라 그 말이 왜 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로 그 이름에 끄달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이름이 될 때는 이 이름으로 쓰고 저 이름이 될 때는 저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한생각에 의해서 생각을 내면 바로 문수가 되고, 몸이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세 이름이 따로따로 있으면서도 따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름에 끄달리지 마시고 직접, 내가 목마르면 물 마실 것이고 가고 싶으면 갈 것이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나쁘다, 좋다' 이러한 것에 여념이 없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면 벌써 이 마음의 도리, 부처님께서 진짜 한 찰나, 불이 번쩍할 때 '이것이 찰나다' 하신 그 공부는 못하십니다. 빛보다 더 빠른 한생각의 찰나는 여기 앉아서 저 문간을 나가는 그 시간이나, 지금 미국을 가서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는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생각에 갔다 올 데를 지금 모두 갔다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여기 앉아서 집에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안 갔다 와지나. 고거와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들은 다 '불자'입니다. 승복을 입고 머리 깎은 사람만 불자가 아닙니다. 불은 생명의 근본이요 자는 여러분의 몸이니까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불자입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내 집 네 집 찾지 말고 사랑합시다. 사랑이란 두 글자를 한데 떨어뜨리지 말구요. 모두가 사랑이라는 그 두 글자를 너무 쉽게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를 않나, 요만한 걸 가지고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지를 않나, 지금 모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질 않나.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아쉬운 것은 대학이나 모든 학교의 문을 좀 넓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돈으로 학교를 지어서 학교 문을 좀 넓히고 나가는 문은 좀 좁히고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이 죽을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공부 못 해서,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모두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행동하지 못해서, 늙은이든 젊은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모두, 앞으로 대학을 가야만 산다는 그 욕구 때문에 애를 쓰고 있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기술 방면으로 나가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취직도 잘되고 봉급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시대가 되도록 좀 넓게 보시고 행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걸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 더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또 젊은이들을 키워 나가는 데도 핵심적인 문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과서도 마음의 핵심으로부터 나가야 하고요. 유치원생부터 마음의 교과서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애를 쓰고 벌어다 공부를 시키는데 감사하지 않으냐?" 하고 가르쳐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먹게 하고 어른들은 자기 부모에게 또 감사하면서 먹게 하고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일체제불과 우리 육의 조상들의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의 마음도 둘이 아니요, 부처의 마음도 둘이 아니요, 우리 전체의 마음도 부모들의 마음도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볼 때 자기가 대신 죽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되길 바라고, 부모는 언짢은 걸 먹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선지식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큰마음의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만 됩니까? 머리 깎은 스님이 아니더라도 사대 성인들의 그 마음들이 전부 한마음이니 어찌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둘이 아닌 것이 바로 한마음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부처님을 찾지 않고 한마음 주인공을 찾게 하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부처님 전에 가서, 칠성한테 빌면 명이 길다고 했으니까 명을 빌고, 또는 산신각에 가서 빌면 무슨 일이 잘된다고 해서 빕니다. 재판이 걸렸을 때나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신중단에 가서 또 신중 기도를 드립니다. 또는 좋은 데로 가게 해 달라고 지장한테 빕니다. 우리 불교가 조선 시대 때에 그렇게 탄압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는 그런 기복적인 것을 개선하고 자력 신앙을 정립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신계의 훌륭한 역군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컴퓨터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차를 움직이더라도 그것을 굴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할 수 있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신력이 돼야 불국토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불국토라는 것은 불교인만의 불국토가 아니라 정신계에 바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며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얻는 것을 불국토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나 이름에 속아 모두 그냥 배타적이 되어서야 어디…. 현재 우리 국민은 반쪽짜리 셋방에 들어서 사는 거와 같은 실정인데 온전한 한 집을 마련하려면 그 아리따운 마음, 둘이 아닌 도리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죽으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몸 떨어지고 말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그 사랑은 아주 없어지는 거죠. 한데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깊은 속으로 '네가 잘돼라.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하고 돌아갈 때 그 마음도 같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어지지 않는 거 같지만 바로 전력이 전달이 되듯이 마음도 전달 아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 것은, 지금 병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기 위해서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것은 바로 본래자성불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말했던 것은 자성불을 가르치기 위해 이 몸뚱이 안에 모든 생명,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몰아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지배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병이 나더라도 '거기서 병이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병이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모두 타의에다가 그걸 맡겨 놓고 야단들을 하는데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 주처에 맡겨 놓으십시오. 컴퓨터에 입력된 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하기 위해서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병이 났으면 바로 약사가 되시라 이 겁니다. 병이 났으면 바로 '아하,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 이러면 그게 한마음으로 뭉쳐서 약사가 됩니다.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 하듯이 그렇게 바뀌진다, 화한단 말입니다. 그게 천백억화신 보살들이 다 행하는 바로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서 못 해!' 하지 마시고, 실험을 하고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힘을 기르시고, 여러분도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모르는 게 죄지 누가 죄가 있겠습니까? 업보가 붙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병고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병고를 일으킨 거죠. 회사만 망해도 병이 듭디다. 회사만 망해도 뭐, 간이 나빠졌느니 당뇨병이 걸렸느니 백혈병이 걸렸느니 온통 야단이 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자기 몸뚱이 의식 하나 이끌어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사람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종교든 나는 배척을 안 합니다. "여기로 오너라. 불교로 오너라." 이러지도 않고 "거기로 가거라." 이러지도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거길 가더라도 좋고 여길 오더라도 좋고, 오직 "주처를 안으로, 내면에 둬라." 이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름을 가지고, 꼬리표를 가지고 분별을 하고 탓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저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자기 인체 내의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깥으로 끄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체 속에도 광력이 있고 전력이 있고 통신력이 있고 자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치료할 수 있다니까요! 속에서 병이 난 거를 바깥에서 치료를 해 봐야 그게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닷속에도 태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파도가 이는 겁니다. 그래야 고기들이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괜히 파도가 이는 줄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흙 속에도 다 지수화풍이,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보석이 생기기도 하고 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땅속에서 석탄, 기름이 다 생길 수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잘 연구한다면…, 연구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픈 재료가 있다면, 가난한 재료가 있다면, 안 되는 재료가 있다면, 또 우환 재료가 있다면 바로 실험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재료!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니 그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해 보세요. '바로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이 알아서 해라. 거기서 고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믿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근본도 슬며시 찾을 겁니다. 근본은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근본이에요. 허허허…. 끌고 다니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너무 가까워서. 요위 속눈썹하고 요 아래 속눈썹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깝게 있으니 그 눈썹을 볼 수가 있나요? 에유!

이 세계, 삼천대천세계의 일체를 잘 요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으뜸가는 부처요 자유인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2월 23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④ 명절의 불협화음을 품어 안는 시간

타인 장단 속 나만의 곡조 지켜 내기

명절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마주 앉으면 약속이라도 한 듯 정겨운 합창이 시작됩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 사이로 익숙한 질문들이 얹어집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가야 해." 악의 하나 없이, 그저 조카와 손주가 남들처럼 평범하고 복된 삶을 살길 바라는 어른들의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다정한 말들은 서른 초반을 지나 여전히 학문과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제게 때로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가슴을 조여 오는 압박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직 다른 인연을 살필 겨를이 없어서요." 짧은 진심을 농담처럼 섞어 대꾸하며 마음속에 고이는 미묘한 감정을 다독입니다.

때로는 그 지극한 관심이 너무 고마워 코끝이 찡해지다가도, 한편으로는 제가 걷는 이 깊은 세계를 짧은 명절 식사 자리에서 다 전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고요한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닐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삶의 속도를 연주하는 이들이 한자리에서 마주 앉을 때 생겨나는 정적(靜寂)의 무게일 뿐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유독 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체능의 길을 밟아온 동료나 친척들이 이제는 다른 분야에서 각자의 자리를 잡아 "아직도 가야금 하니?"라고 물어 올 때였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어린 날의 저는 끝까지 악기를 놓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이자 정답이라 믿었던 오만한 때도 있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해 길을 바꾼 이들을 은연중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명상을 배우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넓어지며 깨닫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악보를 다른 무대 위에서 성실하게 연주하고 있을 뿐임을요.

오히려 여전히 오래된 악기 앞에 앉아 소리를 닦고 있는 제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멈춰버린 시간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악보를 그리고 있는지, 공부를 이어 가며 마주하는 박사 과정이라는 긴 터널을 왜 묵묵히 걷고 있는지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만, 왁자지껄한 명절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이야기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소음처럼 흩어지기 일쑤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우주를 연주하느라 서로의 선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 권유에 마음 억지로 옮길 필요 없어
어르신들 경험 속 '지혜'에 어긋나 있을 뿐
주어진 가락 내 호흡대로 이어 가면 돼

예전에는 이런 질문들에 일일이 답을 하며 저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주변을 설득하고 싶었죠.

하지만 가야금을 연주하며 배운 것은, 결국은 각자의 울림으로 달라진다는 진리였습니다. 어떤 이는 경쾌한 가락에 맞춰 발랄하게 살아가고, 어떤 이는 느릿한 호흡으로 깊게 살아갑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가 다를 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밖에서 일어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들에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명절에 듣는 권유의 말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같습니다. 악기를 다룰 때 날씨가 궂으면 줄이 마음처럼 다스려지지 않아 툭 끊어질 듯 긴장되기도 하지만, 그 바람에 맞춰 내 마음의 위치를 억지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세월 속에서 익숙해진 방식대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가락을 나의 호흡대로 이어 가면 그뿐입니다.

다시 마주한 어른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저는 그분들이 경험한 삶의 지혜 안에서 내어 주신 나름의 자비를 봅니다. 삶의 정답이 하나라고 믿었던 시대의 끝자락에서, 당신들이 아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을 제게 권하시는 것이겠지요.

다만 그 마음이 전해지는 방식이 지금 제가 걷는 인생의 속도와 잠시 어긋나 있을 뿐입니다. 이를 날 선 말로 받아들이면 생채기가 나지만, 그분들이 아는 유일한 방식의 축원이라 여기면 그것 또한 나를 둘러싼 하나의 풍경으로 너그럽게 품어낼 수 있습니다.

수만 번 줄을 뜯고 밀며 손끝에 굳은살이 박여야 비로소 깊은 소리가 나듯, 지금 이 불안해 보이는 30대의 시간도 결국 제 인생의 농도(濃度)를 찾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화려한 연주보다 중요한 것은 줄이 끊어지지 않게 달래며 끝까지 나만의 곡조를 지켜 내는 일임을 이제는 압니다. 설령 그 소리들이 타인의 귀에 잠시 불협화음으로 들릴지라도, 그 밑바닥에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음을 담담히 수용해 봅니다.

명절의 소란함이 휩쓸고 간 빈자리, 고요해진 방 안에서 저는 다시 조용히 줄 위에 손을 올립니다. 타인의 장단에 맞추느라 잠시 흔들렸던 마음의 안족(雁足)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당신의 오늘 명절은 어떤 소리들로 채워졌나요? 혹여 들려오는 소란한 소리에 마음의 줄이 너무 팽팽해지지는 않았나요?

가야금 명상곡 'Light me up'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㉘ 노인 가정 상비약 리스트

평소 복용약 고려해 상비약 구성해야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없어질지도 모른다.

노인 가족이 있는 집이라면 상비약 구성에 조금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인 경우가 많아 가족 중 노인이 있다면 꾸준히 복용 중인 약과 상비약 사이 상호작용과 부작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졸림, 어지러움, 배뇨 장애를 유발하는 약은 낙상이나 사고 같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고 대비해야 한다.

① 해열진통제

노인 가정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진통제(타이레놀)를 구비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부루펜 계열의 소염진통제는 위장 장애나 신장 부담, 부종을 유발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② 소화제, 위장약

소화제의 기본 구성은 1인 가구와 동일해도 문제없다. 다만 연세가 많은 분은 장운동이 느려 변비가 흔하므로 변비약을 추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변을 억지로 보게 해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성 변비약보다는 장으로 물을 빨아들여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삼투성 변비약이나 팽창성 변비약을 추천한다. 락툴로오스 성분이나 차전자 성분처럼 자극이 심하지 않은 부드러운 변비약을 선택하면 된다.

설사를 대비해 지사제를 준비할 때에는 로페라마이드 성분의 지사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성분은 장운동을 억제하여 설사를 멈추는 것인데, 장운동이 느리고, 변비가 흔한 어르신에게 더 장을 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심한 변비나 복부팽만, 장 마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노인용으로 적합한 성분의 지사제를 추천받도록 하자.

③ 종합감기약, 알레르기약

감기약과 알레르기약에는 보통 콧물약으로 흔히 알고 있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돼 있는데 노인이 사용할 약이라면 1세대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제거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을 추천한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같은 성분인데 평소에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성분들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심한 졸림과 어지러움을 일으켜 낙상이나 골절 같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상호작용과 부작용 미리 알아두고 준비
해열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계열 구비
졸림 · 어지러움 성분 없는 감기약 추천

코막힘에 효과가 좋은 비충혈제거제는 슈도에페드린, 페닐에프린 같은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혈관을 수축시켜 부은 코를 뻥 뚫어주는 약인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소변이 안 나오는 급성 요폐색의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한다. 실제로 비충혈제거제를 복용하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으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노인 가정이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코막힘이 너무 불편하다면 먹는 약보다는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더 안전한 선택이다.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약이라 전신으로 흡수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④ 소독약, 상처 연고 등 외용제

노인은 피부가 약하므로 소독약이나 파스는 자극이 심하지 않은 저자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피부가 약해서 파스를 붙일 때 자극이 심하고 알레르기가 생긴다면 바르는 겔 형태의 소염진통제도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혈압계나 혈당측정기도 집에 구비해 두는 것도 좋다. 혈압계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혈압 측정 기계를 구비해 두고 뒤통수 부위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얼굴이 달아오르고 홍조가 느껴질 때 측정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혈당측정기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평소 혈당 수치가 당뇨 전 단계(100~120mg/dL)에 해당한다거나 자주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당기고, 목이 자주 마르고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꼭 혈당 체크를 자주 하고 미리 관리를 해야 한다.

어르신들은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해 이미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만큼 상비약을 구성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상비약이 평소에 먹던 약의 대사에 영향을 주어 효능을 줄이거나 더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그 누구도 노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부처님은 왕자 시절 성문 밖으로 나갔다가 허리가 굽고 이가 빠진 채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걷고 있는 노인을 만나게 되고,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늙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일이 부처님이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 노인이 상비약을 제대로 챙겨 드시고 꼿꼿하게 허리 펴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처님을 만났다면 불교의 탄생이 조금 늦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이번 글을 마친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④

위기는 또 다른 기회



위기 속에서 다시 모인 손길들. 발품을 팔아 선정한 원단과 디자인 샘플을 펼쳐 놓고 앞으로의 디자인과 제작 방향을 논의하는 수레꾼 뽀디봉 공예학교 팀원들.

연이어 벌어진 두 번의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뽀디봉 마을은 그동안 출입이 완전히 금지된 레드존(Red Zone)으로 선포됐다가 이제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옐로우존(YelloW Zone)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북쪽 일부는 여전히 레드존으로 남아 있는 등 자력으로는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수레꾼이 세운 공예학교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장인 쏘리야 선생님과 봉제팀원 네 명에게 프놈펜으로 오라고 했고, 저 역시 프놈펜으로 향했습니다.

스물을 갓 넘긴 봉제 팀원들은 모두 수레꾼이 세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며, 같은 동창 남학생들과 결혼해 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는, 앳된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두 달 가까이 피난 캠프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웃으며 전하는 고생담을 들으며, 그 웃음 뒤에 숨은 고단함을 생각하다가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과거 마케팅 기획자로 일하던 시절 자주 되뇌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위기는 기회다"였습니다. 마케팅 전략가는 시장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멈추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돌파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변화의 순간을 읽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전략의 본질이었습니다.

한자어 '위기(危機)'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危)'는 절벽 끝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떨어지고 맙니다. '기(機)'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전환점입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 태어날 수도 있는 갈림길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끝이 아니라,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순간입니다.

밤 버스를 타고 프놈펜으로 달려온 공예학교 팀원들과 쏘리야 교장 선생님,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봉제 기술을 가르쳐 주신 따프롬 실크 워크숍의 욱 선생님 부부, 그리고 새 디자인을 만들고 있는 저의 아내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겪은 어려움을 뒤로 한 채, 그동안 제작한 봉제품들을 하나하나 펼쳐 놓고 냉정한 품평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하루 종일 열띤 토의를 이어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발품을 팔며 천과 부속품을 사서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위빤 끄찌어 옥까 무이 띠은(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위 문장을 공예학교 교실에 크게 붙여 두라고 쏘리야 교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이제 수레꾼 뽀디봉 공예학교의 새로운 슬로건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의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의 웃음이 교실을 채우는 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사찰음식에 마음을 담다 ② 사찰에 깃든 정성과 명절의 온기

음식 준비, 마음 가다듬는 수행이 되다

산의 능선이 갑자기 끊어지지 않는 곳, 물이 직선으로 밀려들지 않는 자리. 지리산 끝자락 해발 500m 고지에 자리한 고즈넉한 도량에서 나는 하루를 연다.

아침 공양을 마친 뒤 산길을 천천히 거닐며, 밤사이 맺힌 이슬을 머금은 들풀과 바람에 몸을 맡긴 나뭇잎의 흔들림을 바라본다. 산은 아무 말 없이도 많은 가르침을 전한다. 조급해하지 말 것, 억지로 다투지 말 것, 제자리에서 제빛을 다하라는 묵언의 법문이 골짜기를 타고 흐른다.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환희는 하루의 숨결을 더욱 맑게 한다. 산빛과 바람, 흙의 향기까지도 수행의 일부가 되는 순간이다. 작은 솔방울 하나, 이름 모를 들꽃 하나하나까지도 자연은 이미 넉넉한 법문을 품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 깨달음은 마음을 낮추고, 낮아진 마음은 다시 도량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명절이 다가오면 이 도량에는 또 다른 온기가 감돈다. 구정 명절마다 신도님들과 대중을 모실 공양과 다과를 손수 준비하며 나는 도량에 깃들 따뜻함을 먼저 마음에 담는다.

한 가지 한 가지 음식을 정갈히 마련하는 시간은 분주함 속에서도 수행의 연장이 된다. 재료를 다듬고 불을 조절하며 간을 맞추는 모든 과정이 곧 마음을 가다듬는 수행이 된다.

재료 다듬기·불 조절 등 마음 수행 돼
덜고 비우며 음식에 감사와 발원 담아
한 그릇에 담긴 신심과 정성, 도량 밝혀

공양간은 또 하나의 도량이 되고, 불길과 물소리마저 조용한 수행의 울림으로 이어진다.

이번 명절 사찰 공양 음식은 통연근을 오래 고아 낸 육수에 채수를 더해 깊이를 더한 떡국을 중심으로 차렸다. 맑고 단정한 국물 위 고명으로 김가루와 깨, 정갈히 튀겨 낸 연근을 얹어 향과 식감을 더했다. 산뜻한 표고버섯 레몬소스 강정과 마전 향이 은은한 금귤정과, 백설기, 대추차도 갖춰 올리며 화려함보다는 담백함을, 자극보다는 절제를 택했다.

통연근의 맑은 향은 속을 편안히 열어 주고, 금귤의 은은한 단맛은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덜어 내고 비워 내는 조리의 태도 또한 수행임을 새기며, 한 그릇 한 접시에 감사와 발원의 뜻을 정성스레 담았다.

마을에 사는 노부부 신도님이 명절을 앞두고 도토리묵을 손수 빚어 도량에 공양으로 올리셨다.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세월만큼 깊어진 신심과 사찰을 향한 변함없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 정갈히 담긴 묵 한 조각마다 두 분의 기도와 삶의 시간이 고요히 배어 있는 듯했다.

그 따뜻한 마음은 사찰에 깃든 정성 위에 포개져 명절의 의미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한다.

사찰의 정성과 명절의 온기는 이처럼 일상의 수행 속에서 이어진다. 한 송이 꽃, 한 그릇의 공양,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도량은 비로소 살아 숨 쉰다. 그 온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발원하며 새해의 첫 마음을 다진다.

그리고 나는 이 도량에서 이어져 온 정성의 결을 따라, 오늘도 조용히 두 손을 모은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따뜻한 숨결이 이 산자락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그 온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서원한다.



황수경
루미에르드포레 CEO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⑦ 창호지와 문살의 만남

올겨울은 유난히 한파가 잦았다. 방안의 물도 얼던 어렸을 적에 비하면 견딜 만한 추위다. 난방과 입성을 생각하면, 호들갑 떨어도 되나 싶기도 하다.

기분 전환 삼아 한여름 먹는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예전 여름 밥상에는 상추가 자주 올랐는데 텃밭에서 자라는 속도에 입이 따라가기 바쁠 정도였다. 여름날 대청에서 상추쌈으로 점심을 먹을 때, 어른들은 상추의 물기를 창호지에 털고는 했다. '차르륵' 소리 다음에는 '상추쌈은 이래야 제맛'이라는 말이 따라갔다.

전통 건축에서 문살은 '창호지'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종이가 발명된 후에야 울거미에 살을 짜서 만든 방식의 문이 고안됐을 것이다. 그 이전에는 판자로 넓은 문을 만들고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는 벽체 위에 작은 구멍을 뚫고 세로로 굵은 살을 넣은 살창을 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창호지가 문을 판자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

한국·중국·일본의 전통 건축에서 창호의 기본적 구조는 비슷하지만, 창호지를 붙이는 방식은 다르다. 한국과 중국은 문살의 안쪽 면에, 일본은 바깥면에 창호지를 붙인다. 그 이유까지 살피는 것은 이 글의 한계를 넘지만, 집이라는 공간을 대하는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요컨대 창살의 안쪽에 창호지를 바르는 방식으로 하여 우리는 사찰의 아름다운 꽃살문을 볼 수 있게 됐다.



수덕사 대웅전. 손영자 작가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 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제8회 묘공학술장학생 지원

- **지원 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통합과정 포함) 및 박사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 **지원 기간** : 1년
- **선발 인원** : ○명(스님은 별도 전형)
- **접수 기간** : 2026년 3월 1일(일)~31일(화)

※ 지원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제9회 묘공학술상 변경

묘공당 대행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묘공학술상 선정 방식이 변경되어 진행합니다.
2027년 6월에 시상하는 제9회 묘공학술상의 심사 대상은 『한마음연구』 제17집(2026년 8월 발행)과 『한마음연구』 제18집(2027년 2월 발행)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특히 2027년 묘공당 대행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2026년에 모집하는 『한마음연구』 특별 주제는 "대행스님과 한국사회"와 "대행스님과 한국불교의 미래"입니다. (특별 주제가 아니어도 묘공학술상의 심사 후보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상 금 : 대 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 자세한 사항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마음연구』 원고모집

- **발간 시기** : 연 2회(2월 28일, 8월 31일)
- **투고 분야**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 시기** : 연중 접수
-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 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한마음연구』는 연회비와 심사비, 게재료, 연구지원기관 표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행선연구원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myogong@daehaeng.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사랑이 왜 폭력으로 변해 가는가

현불논단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2월과 3월, 14일 거리는 꽃과 선물로 물든다. 연인들은 서로의 관계를 확인한다. 그런데 이별 통보 뒤에 벌어지는 폭력과 비극 소식도 함께 들려온다. 사랑과 폭력이 공존하는 이 역설적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요"라는 가해자의 말 뒤에는 더 깊고 어두운 마음의 원리가 숨어 있다.

불교는 인간의 고통이 탐(貪)·진(瞋)·치(癡)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친다. 이 세 독의 흐름을 보면, 사랑이 어떻게 폭력으로 변하는지 보인다.

'탐'의 뿌리는 결핍이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문제는 이 마음이 "너 없이는 난 살 수 없어"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굳어질 때 시작된다. 이때부터 사랑은 소유로 변한다.

어린 시절 충분한 정서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 내면에 스스로를 지탱해 줄 안정된 토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어른이 된 뒤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기대게 된다. 물론 모든 것을 어린 시절 상처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타고난 기질, 충동 조절 능력의 차이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진실은 집착이 대부분 두려움에서 자란다는 점이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는 순간 '탐'은 한순간에 '진'으로 뒤집힌다.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런데 이 분노 아래엔 두려움이 있다. "난 버려질 거야",

유년기 정서적 돌봄 부재, 관계 집착으로
사랑받으려 집착-좌절-분노-후회 악순환
집착 멈추고 분노 말며 어리석음 깨뜨려야

"난 가치 없는 사람이야"라는 공포와 수치심이 자리하고 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거절과 상실의 충격은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몸을 과각성 상태로 몰아넣는다. 이때 이성적인 판단은 뒤로 밀려나고, 생존 본능이 앞선다. 어릴 때 충분히 진정되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달래는 힘이 약하다. 아무도 잡아 주지 않은 신경계는 결국 폭발하고 만다.

또 어린 시절 폭력·위협을 경험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강자'의 자리에 서기도 한다. 약자의 공포를 다시는 느끼지 않기 위해서다. 그 결과, 과거에 깊이 상처받았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가해자가 되는 슬픈 역설이 생긴다.

'치'는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사랑받고 싶어 집착하고 집착이 좌절되면 분노하며 분노가 지나면 후회와 공허가 밀려온다. 그리고 다시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집착이 시작된다. 이 순환은 반복된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모른다.

사회 구조도 한몫을 한다. 관계 중심의 문화 속에서 이별은 실패처럼 여겨진다. 체면을 중시하고 SNS로 서로 비교하는 환경은 자존감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배워 온 이들은 두려움과 상실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그것이 분노로 터져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탐'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선택, '진'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선택, '치'를 깨뜨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선택, 이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가능한 일이다.

사랑도 변한다는 무상(無常)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랑은 집착이, 집착은 폭력이 된다. 데이트 폭력의 해법은 자기 마음을 보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감정을 다루는 법, 관계를 성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머니 무브 시기, 불교도의 마음가짐

〈Money Move〉

세간과 출세간



이명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드라망연구소장

요즘 한국 사회에 '머니 무브(Money Move)'가 주요한 용어로 등장했다. 이 용어의 뜻처럼 부동산 중심의 자산 시장이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코스피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근래의 활황을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과 산업 흐름 변화, 특히 반도체 호황이 맞물린 결과로 설명한다. 이 흐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불교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불교는 욕망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마음, 미래를 준비하려는 의지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욕망이 구하는 그 무엇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탐욕이 된다.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고 대상을 바꿔 가며 끝없이 확장하고 결국 그 사람을 파괴한다.

탐욕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더 벌고 싶고 남보다 앞서고 싶으며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탐욕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을 말한다. 욕망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적게 욕망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단순 소박한 삶의 태도다. 욕망을 절제하고 이를 위한 수행을 통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소욕지족은 가난한 삶이 아니라, 보시(布施)와 자비(慈悲), 지

보시·자비·지계행 소욕지족의 태도로
타인과 비교 말고 내 마음 점검하며
수익의 일부, 이웃과 사회 위해 나눠야

계(持戒)를 실천하는 생활 양식이다. 욕망을 줄이는 삶은 나 혼자 적게 소유하는 차원을 넘어, 자원이 더욱 공정하게 분배되고 연대가 살아나는 토대를 만든다. 결국 소욕지족은 개인의 마음 수행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주식 투자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첫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 투자를 실천한다. 오를 때 들뜨고 내릴 때 흔들리는 마음에 끄달리지 않는 자세, 이것이 곧 정념(正念)과 정정진(正精進), 정명(正命)의 실천이다. 시장 상황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수익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 남보다 더 벌었는가, 덜 벌었는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마음은 이미 탐욕에 빠진 상태다. 불교는 소유가 아니라 마음과 행위를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라고 가르친다.

셋째,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지금의 수익은 나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뤄진 결과이기보다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연기(緣起)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히 나만의 몫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 일부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누는 일은 자비의 실천이며 욕망을 절제하는 구체적인 수행이다.

욕망을 절제하고 행위의 동력으로 활용하면 삶에 도움이 되지만, 집착하면 탐욕이 된다. '부자아빠', '벼락거지'처럼 탐욕을 조장하는 위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지금은 그 위험이 조금 더 거세진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주가의 등락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혹시 욕망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묻는 태도가 요청된다.

社 說

밀라노 결실, 스포츠 포교의 길을 묻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국가대표 김상겸·유승은 선수가 값진 메달을 들어 올렸다. 두 선수의 도전사는 한국 스포츠의 성취이자, 묵묵히 응원해 온 불교계의 기도와 원력이 함께 빚어낸 결실이기도 하다.

남양주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2003년부터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열어 설상 종목 꿈나무를 발굴·육성해 왔다. 스노보드에 대한 관심이 극히 낮았던 당시 호산 스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보드를 놓지 않던 청소년들에게 장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템플스테이와 기도로 버팀목이 돼 주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이상호 선수를 비롯해 이번 밀라노 대회에서 활약한 선수들 다수가 이른바 '달마키즈'다. 이는 스포츠가 불교의 자비 정신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개인 원력 넘어 제도 체계화해야
미래 인재 양성 · 생활 체육 확대

조계종은 그간 체육인전법단과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중심으로 선수 법회, 상담, 장학 지원 등을 이어 왔다. 올림픽 선수촌 법당에서의 법회와 마음수행은 승패의 압박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심리적 버팀목이 돼 왔다.

최근에는 생활체육을 통한 포교의 지평도 넓어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골프대회와 파크골프대회를 열어 포교 역량을 결집에 나서고 있다. 강화 전등사의 게이트볼대회, 파주 보광사의 배드민턴대회는 주민과 불자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남해 용문사 등 지역 사찰들이 유소년 체육클럽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더 넓은 바다를 바라봐야 한다. 올해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추진하는 '체육 인재 성장 지원사업'은 그 가능성을 보여 주는 반가운 신호다.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체육 분야 유망주를 발굴해 안정적인 훈련 환경과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스포츠 포교를 미래 세대 포교와 연결하는 실질적 전략이다. 어린 선수들이 훈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교 인연을 맺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면, 이들은 훗날 한국 스포츠계를 이끄는 불자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는 몸을 단련하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될 수 있다. 기록을 단축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은 곧 자신과의 싸움이다.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에는 겸손과 인내가 필요하고, 팀워크 속에서는 연기(緣起)의 이치를 체득한다. 승패를 초월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수행자의 정진과 다르지 않다. 그러기에 운동장과 경기장은 불교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생활 포교의 현장이다.

그간 개별 사찰과 스님의 원력에만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스포츠 포교 전담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마음수행 프로그램을 표준화해 보급하고, 장기적 장학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사찰과 복지관 등과 연계해 생활체육 동호회와 청소년 스포츠 클럽을 조직하는 것도 필요하다.

밀라노 설원에서 울려 퍼진 환호가 한국불교 스포츠 포교의 새 막을 여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수 천번의 내 염불이 내 귀에 신명으로 힐링되니 보물이 따로 없다.
본 마이크는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만 본사 유선 마이크로 소리만 비교시 귀 법당의 마이크 가격이 수 백만원이라도 본사 마이크와 비교시 놀라운 차이 확인!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가격 50만원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60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현장 방문 시설가격 ₩ 60만원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60만원

탈종공고
• 사찰명 : 홍연사
• 주 지 : 홍안 스님(속명 : 김주섭)
• 주 소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자은골길 29-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재단법인 법성재단 법성사
• 이사장 : 법련 스님
•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화왕산로 187
상기 사찰은 대한불교관음종
종헌 · 종법을 여법히 수행할 수
없음으로 이에 탈종 함.
불기 2570(2026)년 1월 25일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전통판각법 4기 교육생 선착순 모집

접수기간 2026년 2월 6일부터 선착순 접수

교육내용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전통판각법 교육

교육장소 해인사 장경도감(판각학교)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3길 8

교육일정 토요반 · 일요반 中 택 1 (선착순 접수)

교육대상 대한민국 거주 18세 이상 누구나

신청서 작성 후 아래 항목 중 선택하여 접수

〈신청서는 아래 QR코드나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 홈페이지 : www. haeinsa.or.kr
- 이 메 일 : 12haeinsa@naver.com
- F A X : 055-934-3010
- 우편 : (50200)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종무소
- 신청문의 : 055-934-3000

법보종찰 해인사